



본 보고서는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홍보문화-02-19097-01

2018-19 KORAIL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ONNECTING THE PEOPLE,
THE WORLD,
AND THE FUTURE

KORAIL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2018-19 KORAIL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KORAIL

사람 · 세상 · 미래를 잇다

KORAIL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 Tel : 042)615-3162

KORAIL

About This Report

코레일은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의 미션을 완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성과는 2008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코레일이 발간하는 열한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입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및 ISO 26000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GRI Standards의 핵심적(Core) 부합 방식을 준수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중요 이슈에 대한 경영접근방법을 포함하였습니다.

● 보고범위와 기간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레일 본사와 지역본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으며, 일부 계열사의 활동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 2016~2018년의 3개년 수치를 공개하여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시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내용은 2019년 상반기 활동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핵심이슈들이 코레일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기준연도, 소유와 관련된 전년 대비 중요한 변경 사항은 없으며, 데이터 산정 및 내용기술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각주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는 일부 성과와 정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기술 하였습니다.

● 보고서 검증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를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추가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며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

주소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전화 042-615-3162

이메일 sustainability@korail.com

홈페이지 www.korail.com

KORAIL에는 행복이 있다



CONTENTS

About this report

04 Message from the CEO

06 Let's KORAIL

- #1. 대륙철도의 UN 총회 'OSJD 사장단회의' 개최
- #2. KTX 개통 15주년

10 Highlights 2018-19

12 Company Overview

- KORAIL Profile
- Business Portfolio
- Vision & Strategy

20 KORAIL Core Values

- 안전한 철도
- 편리한 철도
- 미래의 철도

38 KORAIL Social Values

- | | |
|------------|------------------|
|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
| 일자리 창출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
|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철도 |

58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 | | |
|------|----------|
| 지배구조 | 리스크 관리 |
| 윤리경영 | 이해관계자 참여 |
| 인권경영 | 중요성 평가 |

72 APPENDIX

- | | |
|-----------------------|----------------|
| 지속가능경영 성과 | UN SDGs & UNGC |
| 제3자 검증의견서 | 수상실적 및 가입단체 |
| GRI & ISO 26000 Index | 지속가능경영 보고조직 |

Message from the CEO



코레일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정신으로 철도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변함없이 코레일을 아껴주시는 여러분

한국철도는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생활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철길을 따라 지역과 도시에 경제와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2018년은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힘차게 맞이할 준비의 여정이었습니다. 결실의 한 해였습니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2,1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상생을 위한 노사 간의 뜻깊은 노력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대륙철도의 UN'이라 불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으로 대륙철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서울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Message from the CEO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철도는 미래지향적 산업이자 친환경 교통입니다.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량이 적은 철도를 이용하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겠습니다. 사람·세상·미래와 함께 할 대한민국 철도를 다짐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사람중심으로 철도안전을 혁신하겠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예방 차원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3년까지 8조7천억 여원을 들여 시설과 장비를 개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도화된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철도의 생명인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보편적인 교통복지로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과 환경에 차별 없이 모두가 편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벽지노선과 연계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앞선 IT기술을 철도 공공서비스에 적용하겠습니다. 연간 60만 명 넘게 혜택을 누린 공공할인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타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착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전국 역 등의 유휴 자산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와 판로지원 등 철도역을 사회적 가치의 공간으로 가꿔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관계를 맺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대륙철도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 뛰겠습니다.

남북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갈 철도의 새 시대를 주도하겠습니다. 국제화물운송, 여객운송협정 등 국제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대륙철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대륙철도의 당당한 일원으로 관련국과 교류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과 공동번영의 길을 닦겠습니다. 한국철도의 앞날을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철도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돼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소통채널을 활짝 열고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 개발을 활발히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상생 협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철도공동체를 가꿔겠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코레일 사장 **손병석** 

Let's KORAIL #1

대륙철도의 UN 총회 'OSJD 사장단회의' 개최



“세계철도 대표, 서울서 대륙철도 발전방안을 찾다!”
OSJD 사장단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대륙철도의 UN총회라 일컬어지는 '제34차 OSJD 사장단회의'(19.4.8~4.12)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세계 20여개 국가의 대표단 140명 등 국내외 약 300여명의 철도관계자가 참석하여 대륙철도 국가간 협력과 교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의 슬로건은 '평화로! 번영으로!(Toward the Future of Peace and Prosperity)'로 남북 평화는 물론, 유라시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비전과 유라시아 철도로 물류비 절감, 경제협력 강화 등을 촉진해 모두가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제34차 OSJD 사장단회의'는 대한민국이 2018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회원 신분으로 개최 및 참석한 국제철도회의로, 회원국가간의 협력 강화 뿐만 아니라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OSJD회원국의 강한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품격높은 회의장 조성 및 진행을 통해 코레일의 업무능력과 기술을 회원국에게 홍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OSJD란?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1956년 6월 러시아(당시 소련) · 중국 · 카자흐스탄 · 북한 등 구소련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및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동유럽-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위해 구성된 철도협력기구

본부	폴란드 바르샤바
설립년도	1956년
정회원국	29개국
제휴회원	45개 기업
옵저버	7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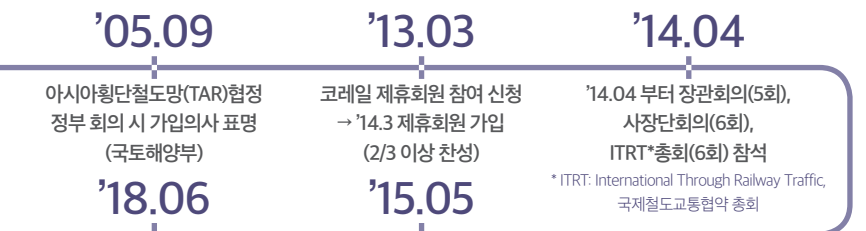
제34차 OSJD 사장단회의



코레일의 OSJD 정회원 가입의 여정



2018년 4월 베트남, 제33차 OSJD 사장단회의



2005년 9월, 아시아횡단철도망(TAR)협정 정부 회의에서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가 OSJD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2014년 3월 제휴회원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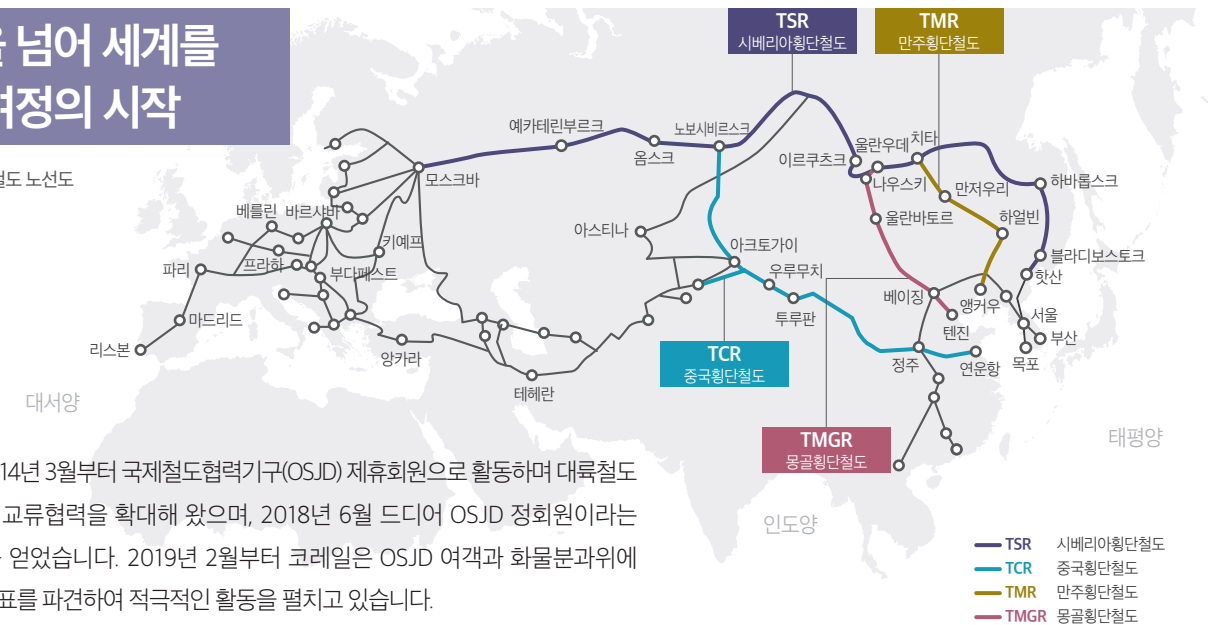
2015년 4월, 서울에서 열린 OSJD 사장단회의 및 제10차 물류분과회의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의 필요성에 대해 대륙철도 관계자가 모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33차 OSJD 사장단회의'에서 코레일은 “한국의 국제철도 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은 ‘철의 실크로드’ 완성의 마지막 퍼즐”임을 강조하며 정회원 가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6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남북을 넘어 세계를 잇는 여정의 시작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도



코레일은 2014년 3월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제휴회원으로 활동하며 대륙철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2018년 6월 드디어 OSJD 정회원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코레일은 OSJD 여객과 화물분과위에 각각 한국대표를 파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20년 화물분과위(ETT)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제51차 OSJD 장관회의 개최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코레일은 아시아 동쪽 끝인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Let's KORAIL #2 KTX 개통 1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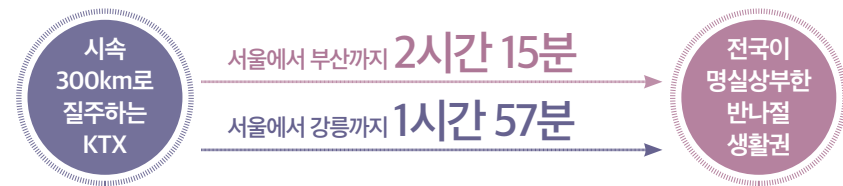
15년간 지구 1만 바퀴 돌았다
개통 15년 맞은 KTX



2004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대표 교통수단 KTX(Korea Train eXpress)가 2019년 4월 1일 개통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KTX는 15년간 6개 노선에서 4억 2천만km를 달렸는데, 이는 지구 둘레(4만km) 1만 바퀴와 맞먹는 거리입니다. 100만회를 운행하면서 7억 2천만 명을 실어 날으며 오천만 국민 모두가 14회 이상 KTX를 탔고, 모든 이용객이 이동한 거리를 합치면 1천 9백억km에 달합니다.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으로



하루 18만 명 이용 ... '출퇴근의 개념'을 바꾸다

KTX 하루 운행횟수는 주말 기준 316회로 개통초기 132회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개통 초 7만 2천 명이던 하루 이용객은 2.5배 늘어 18만 명을 넘어섰고, 정차역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역으로 하루 7만 6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별 KTX 하루 평균 이용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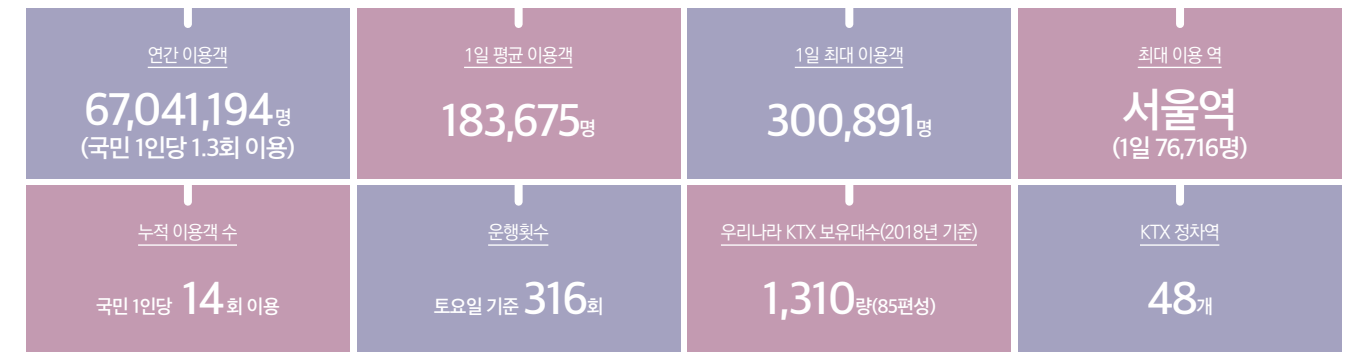
IT 활용한 다양하고 편리한 부가서비스

KTX는 빠른 속도만큼이나 다양하고 편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사용한 승차권 구매율이 71%로, 언제 어디서나 승차권 조회와 발권이 가능해지면서 앱을 통한 발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서비스 제공은 물론, TSS(타임 세이빙 서비스),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KTX에 무선인터넷(Wi-fi) 서비스와 충전용 콘센트, USB 포트를 설치해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등 늘어나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맞춰 차내 설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KTX의 15년

KTX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 운영국이 되었으며, KTX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 도 광역자치체의 48개 정차역을 가장 빠르게 잇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KTX가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최고의 여행 파트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3.31. 기준)



공정한 채용제도로...공기업 최대 규모의 채용

코레일은 2018년 2천여 명, 2019년 상반기에만 1,448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 창립 이후 13년 만의 최대 규모입니다. 코레일의 채용과정은 일체의 신상정보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기반의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완전히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지원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는 2018년 108,846명의 지원자 중 공정성 관련 이의신청 및 민원제기 0건의 수치로 증명하였습니다.



강릉선 KTX, 평창동계올림픽 1등 공신

강릉선 KTX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일궈낸 교통망으로 손꼽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뜨거운 함성 뒤에는 100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관람객을 안전하게 수송한 코레일 직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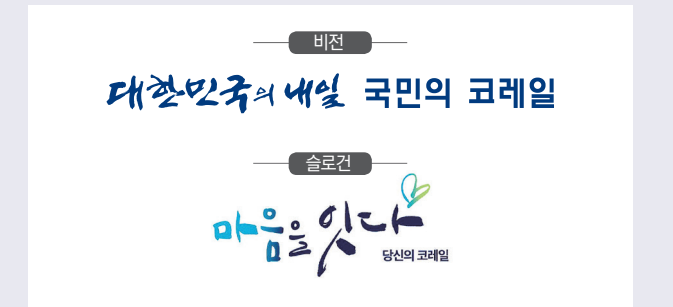
'코레일톡'을 통한 토탈여행서비스 제공

국민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기차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핵심기능인 승차권 구매 UI를 더욱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명절승차권 예매(최초), 카셰어링-렌터카-지역연계교통 예약, 제휴상품 주문서비스, 숙박예약 기능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필요사항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토탈여행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신 비전 및 서비스슬로건 선포

코레일은 국민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까지 잇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새로운 비전과 서비스 슬로건을 선포하였습니다. 코레일은 한국철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임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행복한 내일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배려하는, 신뢰받는, 친근한,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ITX-새마을, 저탄소 제품 인증

코레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심사에서 ITX-새마을 서울~부산 구간의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KTX 서울~부산 구간이 운송분야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철도가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저탄소 제품 인증': 1단계인 '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저탄소 기술을 적용해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24% 이상을 감축한 경우에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KTX 누적 이용객 7억 명 돌파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 전체 누적 이용객이 2018년 12월 13일을 기점으로 7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4회 이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개통초기 하루운행 132회, 7만2천명이 이용하던 KTX는 현재 하루 316회 운행, 18만2천명이 이용하는 대체 불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동반성장 '철도상생플랫폼' 확대 개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철도상생플랫폼(중소기업 기술지원 포털)'은 기술개발 제안뿐 아니라 코레일의 다양한 동반성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지원 창구입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철도상생플랫폼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신공법 등의 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과제 채택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코레일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금융 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산불피해지역 경제회복 지원

대형화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기 위해 모든 고객에게 강릉선 KTX 30% 할인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낙산에 있는 연수원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COMPANY OVERVIEW



KORAIL Profile

Business Portfolio

Vision & Strategy

기업개요

시설 및 수송현황 (2018.12.31. 기준)

차량현황

16,574량

1일 열차운행

3,433회

역수

697개

영업거리

철도거리 4,077.7km
(총 96개 노선)

복선거리 2,573.7km

전철거리 2,932.8km

1일 평균 수송량

여객 351.5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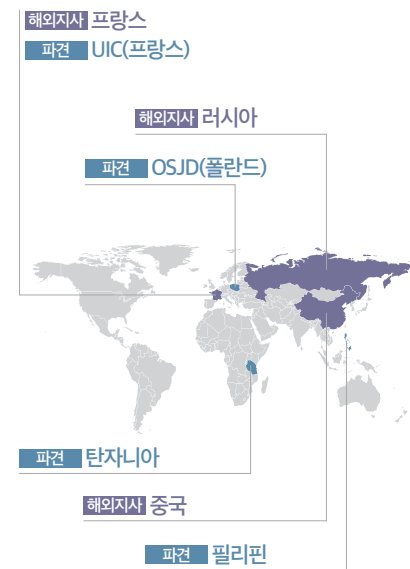
화물 8.5만톤

코레일은 1894년 철도국 창설, 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간 33.2km) 개통을 시작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전국 방방곡곡 철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대륙으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람과 물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명	한국철도공사(KORAIL)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시장	손병석	주주구성	기획재정부 90.1% / 국토교통부 9.9%
설립일자	1894년 6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5년 1월 1일)	총자산	22조 1,168억 원
본사소재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조직현황	(본사) 7본부 5실 6단(65차) (소속기관) 12개 지역본부, 14개 부속기관
설립근거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2003년 12월 31일)	임직원 수	26,983명

● 계열사 현황

코레일은 사업을 특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사업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그룹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계열사의 수익 기반을 보다 견고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2018.12.31. 기준)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정원(명)	자본금(억원)	매출액(억원)	지분율(%)
코레일유통(주)	박종빈	상업시설 운영, 광고매체 운영	477	80	5,347	100.0
코레일로지스(주)	박기홍	철도연계 물류사업	134	77	550	92.1
코레일관광개발(주)	김순철	관광레저, 승무사업	1,065	40	602	51.0
코레일네트웍스(주)	강귀섭	역무관리 및 고객센터 위탁, 주차장 운영	1,886	72	917	89.5
코레일테크(주)	반극동	선로·전기시설 관리, 철도차량 보수, 역환경 서비스	4,782	19	781	97.3

● 해외 지사 및 파견현황

코레일은 국제 교류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新)북방정책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철도연맹(UIC)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직원을 파견하여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대륙철도 연선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지사는 유럽 철도 선진국가와의 교류협력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철도차량 부품의 조달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지사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운행을 대비한 대륙철도 연선국과의 교류협력, 중화권 관광객 유치 및 차량부품 직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러 철도 협력사업, TKR-TSR 연계운행을 위한 각종 공동 연구·조사 등 러시아와의 선도적인 교류 활성화를 다짐고자 2018년 8월에 러시아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코레일의 우수한 철도기술 및 운영 경험에 기반한 해외철도시장 개척을 위해 필리핀과 탄자니아에 직원을 파견하여 철도운영 컨설팅 등의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사업 영역 및 조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는 곧 코레일의 역사입니다

1894

<p>1894 조선 공무아문 철도국 창설</p> <p>1899 노량진-제물포 33.2km 경인철도 개통</p> <p>1974 수도권전철 개통 (서울-수원, 구로-인천, 용산-성북)</p> <p>2004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p> <p>2005 한국철도공사 출범</p>	<p>1897</p> <p>1899</p> <p>1974</p> <p>2004</p> <p>2005</p>
--	---

2018

<p>20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경전선 KTX 영업 개시</p> <p>2011 전라선 KTX 영업 개시</p> <p>2015 호남고속철도 개통 KTX 동해선(포항) 운행</p> <p>2016 수안선 광역전철 2단계 개통 경강선 광역전철 개통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p>	<p>2010</p> <p>2017</p>
--	-------------------------

6대 사업 분야



여객사업 주요 성과 (2018.12.31. 기준)

이용객 수	134,818천 명
1일 열차운행(화~목 기준)	639회
1일 평균 수송량	36.9만 명
1일 평균 매출	6,639백만 원
열차정시율	고속 99.79%
	일반 99.30%

* 고속열차(KTX) 및 일반열차 해당



광역철도사업 주요 성과 (2018.12.31. 기준)

이용객 수	1,167,063천 명
1일 열차운행(화~목 기준)	2,571회
1일 평균 수송량	319.7만 명
1일 평균 매출	2,422백만 원
출퇴근 시간 단축	일반열차 60분
	특급열차 40분

코레일은 설립 목적인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 다각화와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목표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 여객사업

여객사업은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등), 광역철도 등 간선여객열차 운행을 통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열차운행 및 여객수송, 철도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상품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며 보편적인 철도운송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경제 발전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열차운영 확대 및 연계환승체계 확충 등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더불어 철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광역철도사업

코레일의 광역철도는 1974년 29개 역으로 시작되어, 2019년 현재 261개 역에서 하루 평균 약 319만 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급행전동열차 34회 확대, 수도권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서해선의 안정적 개통, 분당선 연장운행으로 인한 환승시간 단축 등 고객의 시간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 역 중심의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물류사업

코레일은 컨테이너, 시멘트, 석탄, 철강 등을 핵심 품목으로 하는 화물운송사업과 하역, 보관, 창고사업 등 종합물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물류사업은 장거리·대량 물류수송과 친환경성으로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대륙철도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자생적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물류사업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주요 성과 (2018.12.31. 기준)

해외사업 수익	신규 사업 수주
75억 원	2건

해외사업 수주실적(누적) (2019.6.30. 기준)

국가 수	사업 수	수주액(누적)
13개국	49개	806억 원



물류사업 주요 성과 (2018.12.31. 기준)

화물수송	1일 열차운행 (화~목 기준)	1일 평균 수송량	1일 평균 매출	매출액	
				화물운송	종합물류
30,915천 톤	217회	8.5만 톤(화물)	1,090백만 원	3,612억 원	368억 원

● 자산개발사업

코레일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신성장사업은 미래사업 육성 및 정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조직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을 다각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개발사업 주요 성과 (2018.12.31. 기준)

자산개발 수익	자산활용 수익	용역계약권 부지 소유권 회복 효과			
		자본증가		부채비율 감소	
74억 원	3,751억 원	회복전 0.5조	회복후 2.8조	회복전 327%	회복후 218%

● 해외사업 & 국제협력

120년간 축적된 철도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철도 사업을 개발, 운영하고, 외국철도 및 국제철도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남북대륙철도 미래성장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남북철도 운영 TF를 구성하여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호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협정국 28개 대륙철도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중인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진출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철도차량 정비·임대 및 시설 유지·보수 사업

코레일은 과학적인 철도 차량 정비와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열차 운행이 되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열차장애와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시설 안전 확보로 철도공공성 강화하고 차량고장률과 시설 장애율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사업 주요 성과 (2018.12.31. 기준)

차량고장률	시설장애율	KTX 고장률
0.054 건/백만km (17년 대비 29% 감소)	1.012 건/천km (17년 대비 11% 감소)	0.077 → 0.044 (17년 대비 43% 감소)

경영가치체계

비전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

서비스 슬로건
마음을 잇는다
당신의 코레일

서비스 핵심가치
배려, 신뢰, 친절, 편의

섬세하고 따뜻하게!
안심하고 기분 좋게!
편리하고 편안하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
코레일의 새로운 비전은, 한국철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감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와 국민의 행복한 내일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코레일 경영가치체계

MISSION 사람·세상·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VISION 대한민국의 내일, 국민의 코레일

핵심가치
안 전 국민안전 | 안전역량
고 객 고객만족 | 직원행복
소 통 국민소통 | 노사상생

경영방침 안전한 철도, 편리한 철도, 국민의 철도, 미래의 철도

5대 전략방향
스마트 철도 안전 | 철도 공공성 강화 | 가치 중심 고객서비스 | 미래 성장 동력 | 기업 문화 혁신

전략과제

철도안전관리 체계 첨단화	보편적 서비스 강화	철도 네트워크 운영 최적화	미래 핵심기술 내재화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
사람 중심의 철도안전 강화	철도 환경-에너지 관리 개선	연계교통 서비스 구축	다원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추진
철도 안전 의식·문화 제고	좋은 일자리 확대	ICT 기반 철도 서비스 가시화	남북·해외철도 사업 기반 구축	좋은 일터 만들기

인재상
철도산업을 리드하는 창의혁신인·글로벌인·전문인

사람지향 소통인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고객지향 전문인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여 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미래지향 혁신인 코레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재
---	---	--

● 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코레일은 공기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실현하고 공사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코레일 만의 특화된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신뢰, 책임, 열정, 혁신, 자연의 5가지 전략을 10개의 분과로 나누어 담당·운영하고 있으며, 분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레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행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전사적으로 내재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공공철도의 사명으로 여기고 철도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비전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

전략

Trust (신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윤리의식 내재화 등 기업과 구성원의 윤리문화 확산을 통한 정도경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	Responsibility (책임) 철도에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 등 동반성장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공기기업 으로서의 책임 완수	Ardor (열정) 열린 고문문화, 균등한 기회 제공 등 차별 없는 인사정책 실현과 고충처리 확대, 직원 건강관리 등을 통한 임직원 만족으로 공사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 조성	Innovation (혁신) 인적·물적 서비스 개선, 안전도 향상 등 고객을 위한 각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철도 기업으로 성장	Nature (자연)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각종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녹색철도 위상강화
---	--	---	--	--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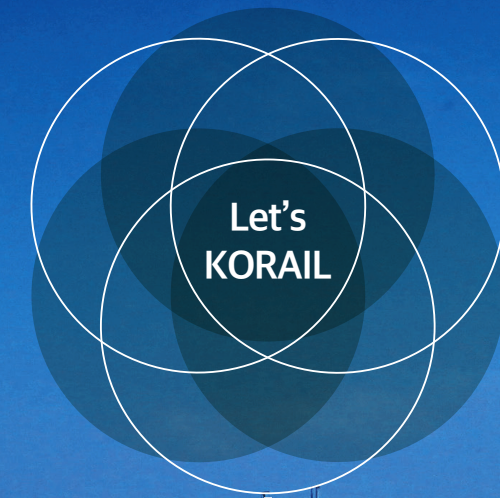
의사결정 비전 수립 및 지속성장 고려한 경영활동 의사결정	지속가능경영추진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방향설정																								
CEO	<table border="1"> <tr> <td>환경자문위원회</td> <td>환경경영</td> <td>녹색성장</td> <td>친환경정책</td> </tr> <tr> <td>휴먼에어리언구위원회</td> <td>직원안전</td> <td>건강증진</td> <td>정신건강</td> </tr> <tr> <td>철도안전심의위원회</td> <td>절대안전</td> <td>안전기술력</td> <td>불안전제거</td> </tr> <tr> <td>투명윤리경영위원회</td> <td>윤리경영</td> <td>반부패청렴</td> <td>공정거래</td> </tr> <tr> <td>사회공헌운영위원회</td> <td>행복나눔</td> <td>재능나눔</td> <td>지역공헌</td> </tr> <tr> <td>고객평가단</td> <td>고객서비스</td> <td>의견반영</td> <td>소통채널</td> </tr> </table>	환경자문위원회	환경경영	녹색성장	친환경정책	휴먼에어리언구위원회	직원안전	건강증진	정신건강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절대안전	안전기술력	불안전제거	투명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반부패청렴	공정거래	사회공헌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재능나눔	지역공헌	고객평가단	고객서비스	의견반영	소통채널
환경자문위원회	환경경영	녹색성장	친환경정책																						
휴먼에어리언구위원회	직원안전	건강증진	정신건강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절대안전	안전기술력	불안전제거																						
투명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반부패청렴	공정거래																						
사회공헌운영위원회	행복나눔	재능나눔	지역공헌																						
고객평가단	고객서비스	의견반영	소통채널																						
이사회																									

추진동력 부여 / 실행 및 피드백

지속가능경영 추진 부서 및 역할

전략체계	주요분과	역할 및 중점관리분야	추진부서
신뢰받는 기업	지속분과	지속가능경영 총괄 및 대외대응 / 각 분야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 / 인식수준 향상 및 홍보강화	문화홍보처
	청렴분과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제도운영 /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교육, 제도개선 등) / 청렴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청렴조사처
사회적 책임완수	사회공헌분과	사회적가치실현분과 / 전사 사회적가치실현활동 총괄 / 철도 업무 공공성 강화 · 국민체감형 사회적가치 성과창출	사회적가치처
	동반성장분과	동반성장 정책수립 및 추진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총괄	물자관리처
열정적인 조직구현	인사분과	근로기준법 준수 및 정부정책 총괄 / 무차별 공정 인사(채용, 등용 등) / 직원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 GWP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운영	인사운영처 복지후생처
	보건분과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제도운영 /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교육, 제도개선 등) / 청렴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청렴조사처
고객만족 혁신기업	고객분과	고객 서비스 향상 정책 수립 및 추진 / 고객소통채널 활성화 및 의견수렴 / VOC 처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서비스혁신처
	안전분과	철도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 고객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안전계획처
친환경 녹색철도	환경분과	환경업무 정책 수립 및 총괄 / 폐기물 관리체계 수립 및 실행 / 친환경기술 도입 및 활용	환경경영처
	에너지분과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총괄 /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운영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 온실가스 배출 절감 정책 추진	

KORAIL CORE VALUES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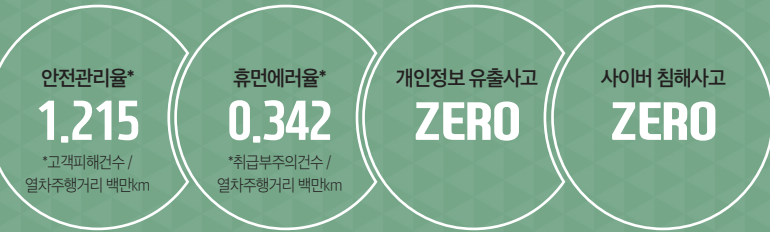
미세먼지·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을 위해 전사 안전의식 혁신 및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련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입니다.

전략 및 관리 방향



안전관리 역량 확대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 우선 정책·제도 강화	안전위협요소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생명 중심 안전 관리 강화 · 안전한 철도차량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구호 위기대응체계 실현 · 차량정비품질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안전의식 혁신 · 안전한 철도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 안전 확보 · 차량 및 시설 안전성 강화

2018/19 핵심성과



모니터링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평가 및 환류
안전관리율	일일	안전경영시스템,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안전관리율, 휴먼에러율, 차량고장률, 시설장애율 점검
휴먼에러율	주 1회	전사경영회의	주요 이슈사항 점검
차량고장률	월 1회	성과분석회의	지표별 실적점검
시설장애율	연 1회	내부 경영정보시스템	자체 내부경영평가 반영

향후 계획

-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정착
- 스마트 차량정비시스템 및 유지보수시스템 정착

Link to UN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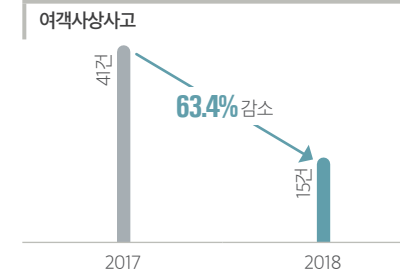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안전관리

● 사람과 생명 중심의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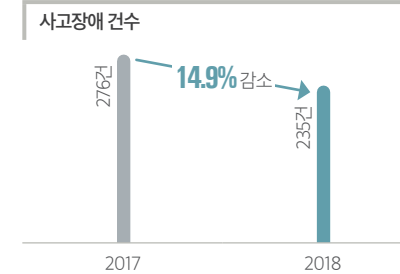
생명존중 안전 프로젝트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40개역 승강장 안전문 설치, 44개역 안전체인 설치, 국민위험감시 CCTV 2,090대 보강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고객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문 감함사고 방지 Bar 16개역 설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60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홍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캠페인, 자살예방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여객사상사고는 전년대비 63.4% 감소한 15건을 기록하였으며 철도 내 자살자 수는 전년대비 45.2%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

경영진의 현장 밀착형 소통을 기반으로 전국 권역별 안전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하였고, 코레일 전사 안전대진단을 시행하여 국민안전의 불안요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안전사각 지대를 개선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참여한 안전워크숍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철도안전 발전방안 자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사적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의 결과 역대 최고수준의 안전운행서비스인 안전관리율 1,215건(고객피해건수/백만Km)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전 사고예방시스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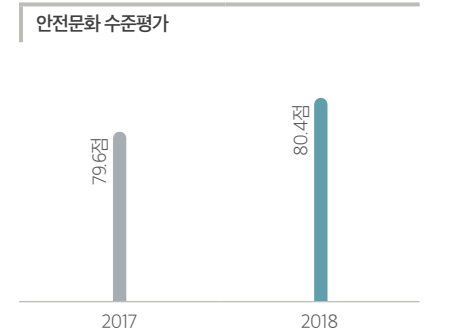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맞춰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시스템의 과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시스템을 선진화하고자 안전관리 데이터 통합 및 위험도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였고, 안전 신고제도의 활성화로 위험요인 데이터화 및 사전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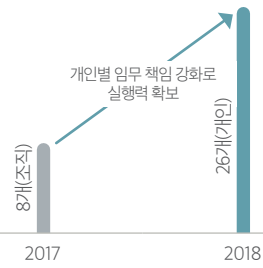
● 전사 안전의식 혁신 추진

코레일형 안전문화운동

전사적 안전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코레일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업무 추진과 자율적 안전문화를 위해 철도 사고예방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사고예방 480건, 직원포상 149명, 문체개선 75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안전강화 중점 활동기간을 정해 UCC, 포스터, 사진, 표어 등 전사 안전 공모전을 시행하였고, 시설물 개량, 차량 결함 개선 등 분야별 현장 불안전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사 안전의식 제고 활동으로 휴먼에러율은 전년대비 11.9% 감소한 0.342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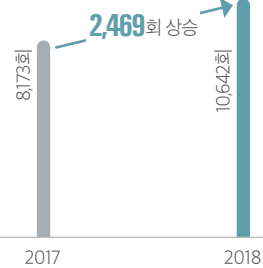


사고·장애 시 대응주체 세분화



개인별 임무 책임 강화로 실행력 확보

비상대응훈련 강화



재난관리평가 및 재난상황 관리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철도시설물 안전 점검

● 위기대응체계 실현

국민안전 중심 비상대응체계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국민 관점의 시간·상황별, 실제 비상상황에 적용 가능한 비상대응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국민구호 조치 후 사고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였고, 사고유형·시간·대상별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후속조치의 전면강화, 비상대응훈련 강화를 통해 위기대응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신규 보안 인프라 구축

정보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인터넷 망 분리, 네트워크 속도 혁명 대응 네트워크의 고도화, 신종 사이버위협 대응 랜섬웨어 시스템 구축 등 신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 침해사고 0건, 인터넷 속도 2배 개선, 랜섬웨어 사고 0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고도화

국가를 포함한 개인 등 전 방위적 사이버 침해사고를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주요정보기반시설시설(CTC, SCADA 등)에 대한 방호대책 요구로 EMP* 취약점 시범 평가를 시행하여 방호대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킹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외부망 간 개인정보 통제 시스템, 서버 내 개인정보 진단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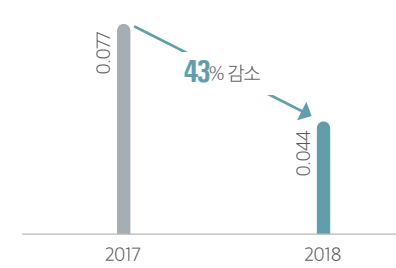
* EMP(ElectroMagnetic Pulse): 고출력 전자기파



차량유지관리

고속차량 고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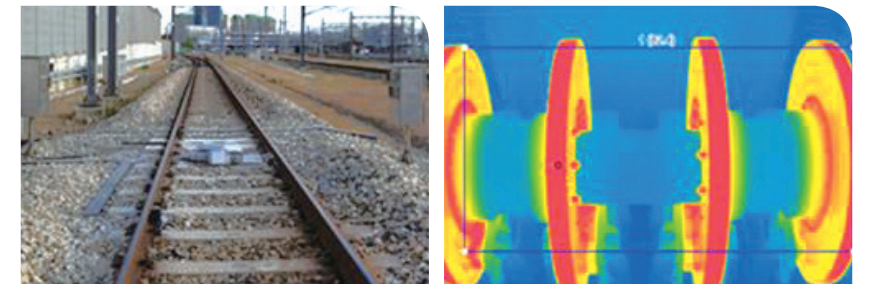
(단위: 건/백만km)



● 안전한 철도차량 운행

선제적인 차량고장 조치를 시행하고자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접목해 고장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경부선 고속철도 구간(대전역)에 고속차량 하부 주행장치 결함을 검출하는 스캐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KTX-산천 고속차량 위치추적시스템을 개선해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부품 교체 개선, 신규 차량 결함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 고속차량 고장률이 전년대비 43% 감소했습니다.

고속차량 스캐닝 시스템*



Hardware

열화상카메라 분석 결과

* 고속 카메라로 하부를 촬영, 이미지 패턴분석으로 변형 상태 모니터링

● 정비품질 최우선

차량부품 품질확보 노력

차량 부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확보에 저해가 되는 부품조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장기 물품 수급 계획을 협력업체와 공유하여 제작물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물품 구매 시 적격심사제도 도입, 업체의 제작능력 검증 강화를 통해 양질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차량 계약 시 예비품 조달 의무를 반영해 예비부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외자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철도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산화 구매를 통해 201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비인력 역량 강화

철도전문자격을 갖춘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정비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철도 차량기술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첨단 엔지니어 등의 양성교육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였고, 특히 철도차량기술사는 코레일이 전체 기술사의 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 ICT 기반 철도시설 유지보수 고도화

데이터 기반의 첨단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자동검측 및 원격감시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시설물 자동검측 활동으로 전차선로 까치집 자동검출 영상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열차 무선-재난방송설비의 전파품질 자동검측시스템을 개발·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원격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위험개소의 드론 점검을 확대하였고, 경부선 선로변 역사 내·외 3차원 영상제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현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ICT기반의 유지보수 첨단 기술 실용화를 위해 산학협업을 확대해 신기술의 검증 및 실용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철도 시설물 점검

●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

철도 이용 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노후선로 및 시설물을 집중 개량하여 운행 장애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과학적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101개소에 차열 페인트 분사장치를 개발·도포해 레일온도를 5~6℃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54개소에 IoT 기반 실시간 레일온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개소에 초음파센서를 활용한 전차선로 장력변화 검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레일절손, 동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246개소에 선로전환기 적설방지 커버와 히팅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차열 페인트 분사장치

● 안전한 철도공간 형성

사회적 약자 등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철도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승강기 부품 교체 및 개선 작업, 철도 건설목 검지기능 향상 레이저레이더 설치·확대, 승강장 안전문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9개역에 냉·난방 설비를 갖춘 대기실 설치, 서울역 경의선과 회룡역 남부 출입구 신설, 승강장 추가 설치,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 역사 및 열차 내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 스마트 건설 기술안전대전
최우수상
레일온도 저감을 위한
차열 페인트 분사장치

배경



4차 산업혁명, 해외여행 선호, 저출산·고령화, 이상 기후 등 철도를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고객의 니즈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인 코레일의 공공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 조성은 코레일이 대응해야 할 중대 이슈입니다

전략 및 관리 방향



사업 역량 강화	ICT 기반 서비스 확대	중합교통플랫폼 구축	고객 수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행사 KTX 수송력 강화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교통플랫폼 구축 교통약자 IT 이용편의 확대 모바일 구매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합연계교통체계 구축 KTX 열차운행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공항터미널 활성화 철도관광 협업체계 강화 맞춤 서비스 제공

2018/19 핵심성과



<p>공공합인 규모 연간 1,216억 원</p>	<p>공공기관 고객만족도 A등급 91.7점</p>	<p>올림픽 기간 철도수송 분담률 33% 106만 명 KTX 열차정시율 99.79%</p>	<p>공공택시 철도연계 서비스 정부혁신 대통령상 수상</p>
---	--	--	--

모니터링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평가 및 환류
고속철도 이용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 열차 상시 모니터링, PCSI, VOC 분석으로 서비스 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VOC 분석을 통한 실시간 고객니즈 파악 및 정책 반영
일반철도 이용객 수	월, 분기, 반기, 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분기, 연간 수송실적 분석 부서장 책임경영계약, MBO평가, 본사·본부 내부경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목표 상시 점검을 통한 지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광역철도 이용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및 상시 최고경영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평가 반영으로 체계적인 성과창출의 동력 확보

향후 계획

- KTX 신선개통 준비(수원, 인천궤 개통) 및 One-Stop 플랫폼 완성
- ICT 기반 서비스 정착 및 전 구간 고속열차 연계
- 광역철도 급행·일반·서틀열차 운행 및 스마트 역·열차 환경 구축

Link to UN SDGs

<p>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p> <p>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p>	<p>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p> <p>지속가능도시 구축</p>	<p>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p> <p>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p>
--	--	---

고객서비스 혁신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철도 수송 기업



OFFICIAL SUPPLIER
공식 철도 수송 기업

KTX N카드 (2019.06 기준)



기존 정기권 상품 개선을 통한 新 정기권 상품 출시

기존 정기권의 제한사항

- 10일~20일~30일 단위로 구매 가능
- 주말 사용 불가
- 자유석 수 부족으로 인한 입석 이용
- 장거리 이용시 별도 좌석 없음

'新 정기권' 상품 출시

- 주말 선택 가능한 '기간자유형 정기권' 출시
- 사용횟수 차감형 정기권인 'N카드' 출시
- 고객 필요시 사용가능한 '좌석지정' 제도 마련
- 자유석 객실 수 10.5% 확대 (179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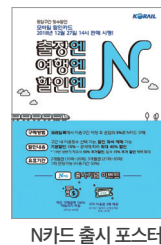
Best Practice

횡수차감형 모바일 할인 카드 'KTX N카드' 출시

2018년 12월 말 코레일은 기존 정기승차권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횡수차감형 모바일 할인 카드인 'KTX N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KTX N카드는 지정된 구간과 횡수만큼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승차권으로 한 달 치 승차권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정기승차권과 달리 필요할 때 자유롭게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KTX N카드는 출시 9일 만에 1만 매 판매를 돌파하는 등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특히 KTX를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편의성을 높인 점, 승차권 구입 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 등이 큰 인기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차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N카드 종류

종류 (횡수선택 가능)	10~20회	21~30회
유효기간	2개월	3개월
카드가격	정상운임의 5%	
승차권 할인율	15~40%	



N카드 출시 포스터

● 대국민 서비스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성공 개최

코레일은 전사 역량을 집중하여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56일을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여 열차 운영을 확대했고, '평창올림픽 수송 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임시열차 투입, 개폐회식 특별수송대책 등을 마련하여 올림픽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패럴림픽 특별 수송기간에는 휠체어석 확대, 주요역 휠체어 전동리프트 추가 배치, 장애인 전용 예매 좌석 운영 등의 활동을 하였고, 승·하차 및 차내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 관람객 수요에 대비해 안내표지 및 방송정비, 철도 고객센터 외국어 전담인력 확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주요 성과

열차 운행	이용객 수송	장애인 좌석 지원	올림픽 전 기간 사고
4,135회	106만 명	일평균 3,825석	ZERO

다양한 교통비 절감사업 추진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기관 이용고객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정기관 이용 시 제한되었던 사항을 고객친화적으로 개선한 '신(新) 정기관 상품'들을 출시해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그룹 여행객을 위한 '넷이서 5만원'(강릉선 4인 이용 50% 할인), '넷이서 10만원'(기존선 전 노선 최대 60% 할인) 등의 KTX 신규 할인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정한 횡수만큼 미리 정한 구간의 할인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횡수차감 방식 모바일 할인 카드인 'KTX N카드'는 발매 9일 만에 1만 매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레일 특 기능개선



전산망 개선을 통한 ICT 활용 서비스 강화

정부 및 외부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철도승차권 예매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공공 할인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역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격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비스'와 연계하여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나 코레일 앱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자 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간편 로그인, 카카오페이 등과 연동한 간편 결제 및 간편 계좌이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내).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활용해 명절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예매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접근성 강화한 철도 교통망 구축

코레일은 단순 공급자 중심의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어 철도중심의 연계교통 서비스인 '종합교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집에서 목적지까지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승합렌터카 공유 O2O 시범서비스, 코레일톡 활용 렌터카 카셰어링 통합예약서비스 등의 연계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철도 연계교통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6% 이상이 이용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KTX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용산역 행 부산·포항·마산역 방면 KTX의 서울역 시·종착 일원화, 이용객 많은 노선·구간 열차증편 및 공급좌석 확대 등 열차운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 선호도 향상에 맞춰 인천공항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고 도심공항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명역 21회 추가 정차, 공항버스 운행 횟수 확대, 편의시설 및 고객안내 서비스 강화 등의 활동으로 광명역 이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여 철도를 교통의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철도 연계교통 관련 철도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2018.11. 전국 80개역 철도 이용객 1,248명 설문)

신규 연계교통 도입 3대 방향

추진 방향	공공형 교통수단 도입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공유형 교통수단 확장
타겟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승합렌터카 공유 O2O 시범서비스	코레일톡을 통한 공유형 교통수단 통합예약서비스
추진활동	대중교통 낙후 지역	혁신도시 권역	전국 산간지역 주민의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혁신도시 승합렌터카 O2O 서비스	코레일톡 활용 렌터카 및 카셰어링 통합예약서비스

Best Practice

공공기관 최초 제로페이 도입으로 고객 편의 확대

코레일은 2019년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전국 975개 철도매장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게 되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레일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로페이



승강장 미세먼지 저감기



미세먼지 대비 환경활동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

고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철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개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체감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역사인 관악·남영역 개량사업, 336량 노후 차량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27개역 대형선풍기·송풍기 설치, 경의중앙선 8개역 승강장 냉난방 고객대기실 설치, 경인선 전동열차 에어컨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4개역 역사 출입구 신설, 환승편의를 위한 안내표시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개역 공조설비 필터교체, 일산·분당선 미세먼지 발생원 흡음판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기준 월 2회에서 4회로 강화, 신규차량에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노후역사 개량사업(남영역)



편의시설 개선사업(전동열차 에어컨)

철도 공공성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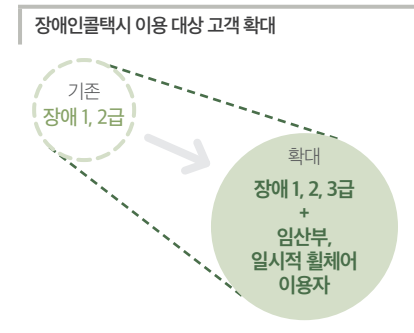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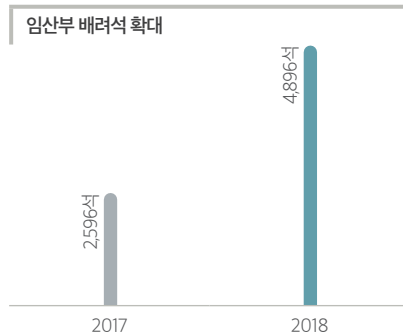


임산부 배려석

● 사회통합 철도서비스

교통약자 이용 편의 향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설비를 확대하여 열차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임산부의 전철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임산부 배려석을 확대하였고, 영어표기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각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를 확대 운영해 역과 연계한 승차권예약, 승하차 도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장애 1,2급에서 장애 1,2,3급과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각장애인 음성인식 예매 신설, 안내견 좌석지정 확대, 자동발매기 음성인식 서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열차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공합인 서비스 제공

서민 교통비 절감 및 출산장려 등 공익 목적의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수혜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무임승차 유아연령 및 다자녀 가족 할인 기준을 확대하였고,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상품 등 공공합인 상품을 홈페이지, 코레일 톡 뿐만 아니라 역 창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판매기간 역시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은 열차 출발 1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이용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합인 서비스 현황	
Mom(맘)-편한 KTX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기준운임의 40%) 면제
다자녀행복	인증 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2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기초생활 할인	인증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운임의 30% 할인

공공합인 서비스 확대

- 무임 유아연령 확대: 만 4세 미만 → 만 6세 미만
- 다자녀 가족 할인 확대: 만 25세미만 자녀 3명 이상 → 만 25세미만 자녀 2명 이상
- 구매가능 기간 확대: 열차 출발 1일 전 → 열차 출발 당일 20분 전
- 임산부 할인 대상 확대: 본인 한정 → 동행보호자 1인 포함
- 임산부 할인 기간 확대: 출산예정일 + 1개월 → 출산예정일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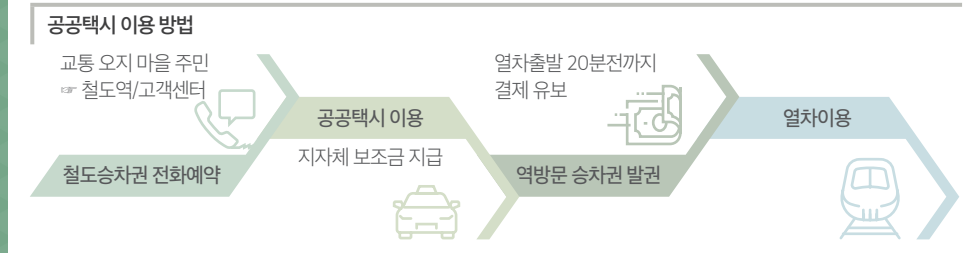
Best Practice

공공택시* 철도역 연계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철도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7월 공공택시 철도역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산간벽지는 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정류장까지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코레일은 연계교통이 미비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택시를 활용하여 지자체까지의 연계교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용객 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고려하여 전화 한 통화로 택시 호출과 철도승차권 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승차권 결제를 유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코레일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향후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택시 연계 서비스가 잘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철도연계 서비스를 강화해 철도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공택시: 산간벽지 및 대중교통 1일 3회 이하 운행하는 교통서비스 낙후지역 주민대상에게 택시요금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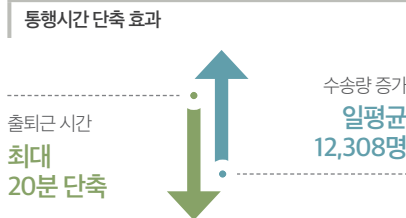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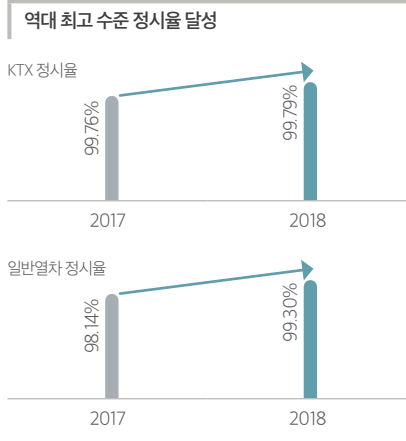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고객

벽지노선 편의 개선

코레일은 산간지역 등 수요가 적고 운행비용이 높아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비수익 벽지노선에 열차를 운행하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경북선(김천~영주), 경전선(진주~광주송정), 대구선(가천~영천), 영동선(영주~안인), 정선선(아우라지~민동산), 태백선(제천~백산)의 총 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주말 평균 구간 경유열차는 140회입니다. 향후 벽지노선의 편의 증대를 위해 이색적인 철도관광서비스 개발, 철도 테마파크 조성, 철도 중심 복합연계교통망 구축, 벽지노선 맞춤 저비용·고효율 경량운송 차량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도이용 불편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고객의 시간가치 제고



* 분당선(왕십리역~수원역) 및 경의선(서울역~문산역)
** 서울역~일산역 구간 → 서울역~문산역 10회 증편/
용산역~천안역 구간 → 용산역~신창역 2회 증편

● KTX 정시율 향상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율을 달성하여 고객 시간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차 지연 요인을 사전 발굴 및 개선하고자 본사의 '정시운행협의체'를 격상 운영해 실행력을 제고하였고, 현장에서는 '정시운행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상습 지연열차 13개를 집중 관리·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지연열차의 운행시각 및 정차역 조정, 지연열차·병목구간 집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형열차 장애 시 인접선 및 후속열차가 연쇄 지연하는 문제를 집중 관리해 열차 지연 최대 원인을 사전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KTX 정시율 99.79%를 달성하였습니다.

● 일반열차 정시율 향상

일반열차의 4대 지연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일반열차 정시율 99.30%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객 승·하차'로 인한 지연 요인을 관리하고자 28개역 교통약자 배려 휠체어 리프트 38대 배치, 승·하차 인원 고려 역별 정차시간 재조정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열차경합'으로 인한 지연요인 해소를 위해 152개 상습 지연열차의 운전시각과 정차역을 조정하였고, '선로지장'으로 인한 지연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병목구간 55개소 중점 관리 활동, 레일 신축이음매장치의 인력탐지주기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설비'로 인한 지연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차량 예방정비 및 노후차량 집중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급행열차 확대를 통한 통행시간 단축

고객 통행시간 단축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경인선 특급열차 8회 운행, 급행열차* 4회 증편, 광운대역~동두천역 급행열차 10회 신규 운행, 급행열차 운행 구간** 12회 연장 등 보유자원을 최적화하여 열차 운행을 확대하였습니다. 급행열차 확대의 노력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20분 단축, 일평균 12,308명의 수송량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개량과 차량 확보 등을 통해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향상시켜겠습니다.

배경



화물 운송사업의 한계, 철도 자산의 공익적 활용 요구 증대,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해외철도 시장 확대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철도 고유의 자산과 경쟁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전략 및 관리 방향



사업 역량 강화	고객 요구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	상생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대량수송체계 구축 종합물류사업 활성화 대륙철도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경영 및 공공성 강화 역사개발, 연계·환승 확충 공익적 자산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활용 신사업 추진 남북대륙철도 시대 준비 해외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및 철도유류부지 개발 민간기업 해외진출 건인

2018/19 핵심성과



모니터링

성과지표	점검주기	평가방법	평가 및 환류
인당 수송량	매주, 매월	물류혁신전략회의(격월), 물류영업전략회의(매월), 주간회의(매주), 영업분석(매일)	일일 영업분석 및 주간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공동 대응
화차당 수송량		부서장 책임경영계약, MBO, 내부경영평가	매월 지표별 실적평가를 통한 공정관리 및 만회대책 마련
종합물류 매출비중		XROIS(철도운영정보시스템), KOVIS	성과평가 반영으로 체계적인 성과창출의 동력 확보
자산개발 영업수익	수시	KOVIS, 열린혁신회의(CEO주재)	월별, 분기별 실적평가를 통해 공정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자산활용 영업수익		부서장 책임경영계약, MBO 평가, 내부경영평가	성과와 보상 연계로 성과 촉진
해외사업 영업수익			

향후 계획

- 첨단물류기술 적용 확산 및 대량 거점수송체계 확립
- 핵심역세권 인허가·착공 및 임대개발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 대규모 해외 투자사업 진출 및 남북대륙철도 국제화물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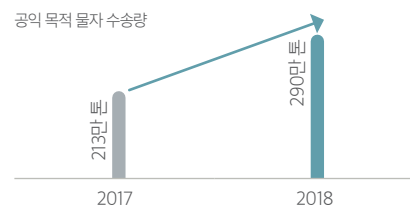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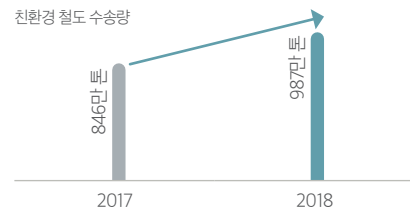
Link to UN SDGs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물류사업

주요 성과



원격제어 입환 시연하는 코레일 직원

● 화물운송의 친환경·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철도수송량 증대, 공익 목적의 물자수송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도수송량*이 증대함에 따라 대량 수출입 물량을 적기에 수송하기 위해 수송용기 활용 신규물량 유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반화물의 수요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열차를 운영하여 물량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익 목적의 물자수송을 지원하고자 수출품이 많은 산업구조를 지원하는 수송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도로 수송이 불가한 고중량·장대화물 등의 특수물자 수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시 에너지 소비량(1인/Km당 소비열량): 승용차 대비 1/8, 화물차 대비 1/14
이산화탄소 배출량: 승용차 대비 1/6, 화물차 대비 1/13

● 사업구조 및 운송체계 최적화

사업구조의 개선과 수송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물류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량·다빈도, 벌크화물의 수요 감소 등 물류환경변화에 대응해 역, 조직, 열차·화차의 운영체계를 최적화하여 151.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2대의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속화물열차의 운행을 기존 12대에서 18대로 확대하였으며 열차운행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대열차 4대를 확대해 수송량 18만 톤, 매출 12억 원의 증대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19년 완결을 목표로 '신재생 발전연료 대량 수송을 위한 안인역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제어 입환시스템: 입환취급자가 기관실 밖에서 기관차를 원격제어하며 차량을 연결, 분리, 교환하거나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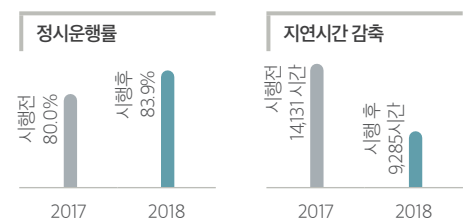
● 고객에게 다가가는 철도물류

고객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화물열차 정시 운행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반복된 지연 보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 열차 지연보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공사의 귀책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된 전용열차에 한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시운행률 3.9%p 향상, 열차지연 4,846시간 감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물류 철도운송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그린레일 인증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제안된 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Best Practice

화물열차 지연보상제 시행을 통한 고객 시간가치 제고 및 만족도 향상

코레일은 화물열차에도 여객열차와 같이 열차 지연에 대해 보상해주는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열차 지연보상제도는 코레일과 전용열차 계약을 체결한 147개 화물 열차가 공사의 귀책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 요금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객의 시간가치 손실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체계 확립 전사 워크숍

● 안전한 수송체계 마련

물류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입니다. 코레일은 작업자의 산업 재해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절대안전 수송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업무 프로세스, 설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적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최저 운임톤수 하향, 역별 점검방법 내규화 등의 '제도개선 활동', 편적 방지용 균형선 표기, 차량 정비·결박기준 강화 등의 '철강품 결박방법 개선활동', 편적 확인용 CCTV 설치, 계중기 설치계획 수립 등의 '적재점검 프로세스 보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도보입환 확대	안전난간 도입	원격제어 입환 시스템 설치	벌크화물 초과적재 건수
59개역	1,081량	2대	243건 → 51건 (79.0% 감소)

● 상생협력을 통한 물류사업 확대

코레일은 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물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택배물동량에 급증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KTX특송 영업망을 활용한 민·관·공 협업을 맺어 전년 대비 KTX특송 이용건수는 15.5% 증가한 55만 건을 기록하였고, KTX 특송영업소 2개소 신설 등으로 민간 일자리 9명을 창출하였습니다. 한편, 물류창고업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신규 물류창고의 개발 및 운영 직영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일자리 185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KTX 특송

● 남북대륙철도 운송 준비

남북대륙철도 연결 시 국제화물열차를 체계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운송 준비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물 정보시스템 연계 및 수송방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여 남북대륙철도 TF 운영, 국제철도 화물운송정보 연계, 자체 수송방안 마련,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효율적인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북 왕복수송용 멀티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화물열차 활성화 시 교역 증가에 대비하고자 수송 방안 방향성, 민간기업 협력 방안, 민원 해소 방안 등을 점검해 수도권 물류거점기지 구축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남북철도 현지 조사('18.12.)

국제화물열차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및 수송방안 마련 추진

단기(2018년)	중기(2019년~2021년)	장기(2022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대륙철도 TF 구성·운영 국제철도 화물정보 연계 검토 물류인프라 수송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대륙철도 국제운송제도 정립 국제철도 화물정보 연계 연구(국가R&D) 국제화물열차 시범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거점 물류기지 구축 국제철도 종합물류사업 국제화물열차 정기운행

철도자산 가치창출



역세권 개발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 전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 후

Best Practice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코레일은 역세권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일거리, 문화 공간, 청년창업 등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세권 개발을 콘셉트로, '중심지가지형' 천안·조치원역, '우리동네 살리기형' 제천역, '경제기반형' 광주역을 조성하고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천안역	스마트시티 / 공공임대주택 / 복합환승·상업센터
조치원역	스마트시티 / 창업센터 / 임대주택 / BRT*환승센터
제천역	마을카페 / 청년창업하우스 / 제천역사관
광주역	문화콘텐츠 분야 / 창업 및 지원 / 도시재생 창업은행 / 아시아문화마당 청년드림혁신센터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 핵심 역세권 개발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코레일은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용산역 등 핵심 역세권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 소유권 분쟁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지만 '18년 6월 부지 소유권을 회복하며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2.3조 원의 자본 증가, 109%p 부채비율 감소의 재무적 효과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용산역세권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될 '미래 서울의 신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 가속화

코레일은 서울 주요지역(서울역북부, 수색역, 광운대역, 舊용산병원 부지)과 대전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역세권은 서울시와 도시계획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역북부 및 舊용산병원 부지는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및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단계(DMC역) 사업협약을 체결한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2단계(차량기지·수색역 통합개발) 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확정 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성 개선 방안을 대전시와 협의 중이며,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사업자를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노후역사 복합개발 추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설개선 요구를 반영해 노후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년 된 성균관대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합역사를 완공하였으며 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아울러 도농·인천역의 개발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고,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의 현대화와 청년주택을 보급을 추진하고자 '18년 11월 코레일-금천구-NH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계·환승편의 제고

철도역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와 철도를 연계한 환승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차빌딩 개발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 9월 18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망우역 주차장을 준공해 24시간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명역 주차장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송정역과 전주역 주차빌딩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교통 서비스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철도자산 공공성 강화

역사매장 등 자산임대 제도 및 불공정 약관 개선

철도자산 임대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제도와 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월 최저하한 매출제도 폐지, 정보공개 확대, 감액청구권 도입, 편의점주와 상생도모 등으로 자산 임대 제도를 개선하였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사회적약자 등 입찰 시 가점 부여, 특약사항 추가, 손해배상 범위 계약기간 연장, 계약해석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자산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중소 자영업자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자산임대 제도 및 불공정약관 개선 현황		
구분	개선 내용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월 최저하한 매출제도	폐지
	정보공개 확대	예정가격,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 공개
	감액청구권 도입	매출 부진 시 수수료율 등 감액청구권 명시
	편의점주와 상생도모	역사 내 편의점주 지급금 인상('19.1월, 18억원)
불공정 약관 개선	사회적약자 등 배려	입찰시 가점 부여
	특약사항 추가	임대인 → 상호합의
	손해배상 범위	임대인의 손해책임 명시
	계약기간 연장	5년+3년 → 5년+5년
계약해석	"임대인 일방 결정" 삭제	

해외남북사업 다각화



동해-경의선 연결구간 공동점검

주요 성과
해외 영업수익
2017 71억 원 → 2018 75억 원
해외사업 공동참여
국내 민간기업 193억 원 수주

공사 자산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지원

유·무형의 철도 공공자원을 사회공동체와 공유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지역 생산품의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명품마루 매장을 철거한 후 확장·이전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 입점을 확대하여 총 214개 입점업체 중 22.4%의 업체에 사회적 기업 상품을 입점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임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대 75%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임대요율 인하 등 21건, 직거래장터 등 판로지원 31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레일은 향후 철도역의 접근성 등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허브'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 대륙철도 국제 경쟁력 강화

북한철도 현대화 참여

남북대륙철도 운영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한철도 현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하였고 남북철도운영 TF팀을 구성하여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철도 공동조사 기간에 유조차, 발전차(300kw), 객차, 침대차 등 차량을 무상 지원하였고, 경의·동해선 연결구간 공동점검('18년 7월), 경의선 남측구간 유지보수('18년 8월), 경의·동해선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18년 11~12월)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철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18년 12월에는 북한철도 현대화 착공식에 참여해 열차운행과 기념승차권을 발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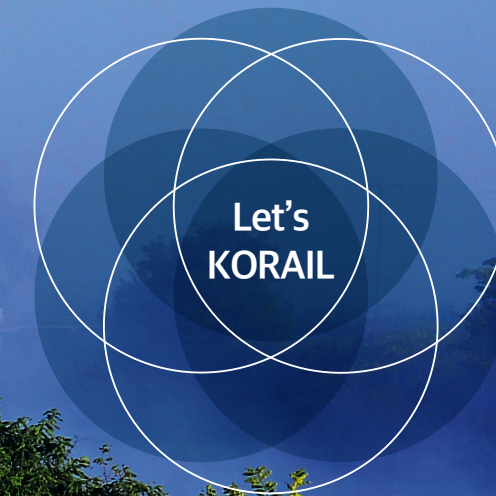
남북 대륙철도 운영기반 마련

남북 대륙철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대륙철도 경쟁력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 남북대륙철도 전문가 양성 교육을 연 2회 수행하고 있으며, '18년 10월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국제운송협정 등에 대한 연구를 월 2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정회원 28개국과 협정효력을 지니는 성과를 거두었고, '19년 4월 코레일 주관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철도공사 철도협력 양해각서 체결, 폴란드철도공사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해외철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해외철도 시장 개척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진출한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필리핀 마닐라 MRT-7호선 기술자문 사업과 동일한 노선의 운영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기술자문의 추가사업으로 철도연수센터 건립 및 운영보수(O&M) 자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틈새시장 개척 전략으로 중고 유류자산 매각 품목을 확대하여 25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며 15년간 약 234만 장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공급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KORAIL SOCIAL VALUES



●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

●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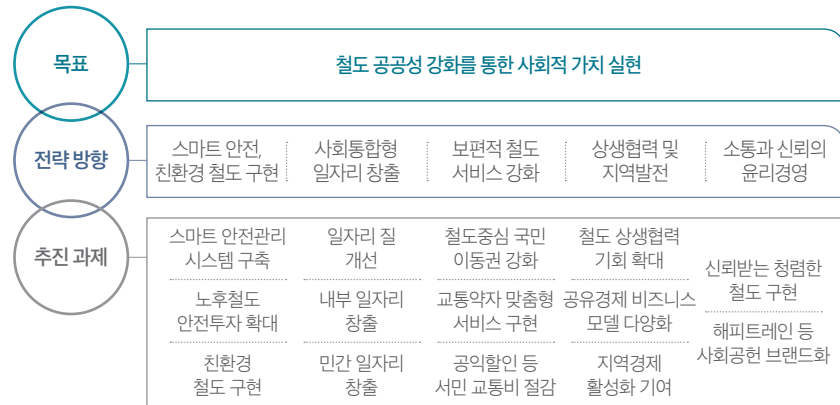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철도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전략

●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체계

코레일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방향,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목표 및 추진과제



● 추진 경과

국정철학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전담조직인 미래전략실 사회가치처를 신설하였으며, 코레일 고유의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립하는 등 업무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신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철도 공공성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영목표 전면에 배치하였고, '18년 6월 '중장기 사회적 가치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 경과



'18.04

사회적 가치 추진방향 정립

공기업 최초 안심번호사제 도입

미세먼지 걱정없는 클린철도 선포

'18.09

철도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수도권 출퇴근 질 개선을 위한 광역급행열차 운행 확대

산간벽지 오지마을 공공택시 철도 연계서비스 도입

'18.12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6,769명)

역대 최대규모의 신규채용(2,185명)

'19.03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철도상생플랫폼 확대 구축'

사회적 가치 실현

구분	주요임무
사무국	실행과제 발굴·점검, 추진단-네트워크 운영 총괄
안전환경팀	안전관리 시스템화, 산업재해예방, 미세먼지 감축 등
일자리창출팀	비정규직 해소, 신규채용,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등
본사 (5팀 24명)	운송사업팀: 수송체계, 운임제도, 환승체계 등 철도이용편의 증진 상생협력팀: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윤리경영팀: 갑질근절, 불공정 해소, 인권보호, 사회공헌 강화 등
지역추진단(17개)	본사 실행과제 지원·실행, 지역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

● 추진 조직 및 대내외 네트워크

추진 조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운영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을 포함해 본사의 9개 팀과 17개의 지역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 9개 팀은 정부경영평가 계량목표 및 특화사업 등 평가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17개의 지역추진단은 본사 추진사업 지원 및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활성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을 주축으로 실행력을 제고해 코레일형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 조직도



중요성과 관리 방향

복잡성, 불확실성 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역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우리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이자 공공부문이 앞장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입니다. 코레일은 철도 고유의 사회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사 고유의 사회적 가치 개념을 재정립하여 '철도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 하였고,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실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8/19 핵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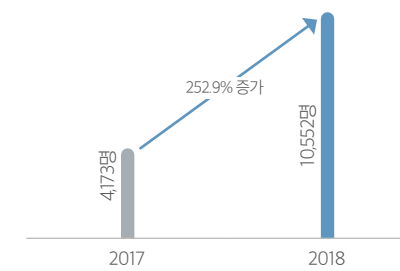


Link to UN SDGs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현황



● 일자리 창출 실행 종합계획

코레일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실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추진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일자리 창출, 철도인프라 활용 민간일자리 창출'의 2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신규채용 확대 1,600명, 일자리 질 개선 4,631명, 민간일자리 창출 3,508명, 제도개선' 등의 4대 실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 협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방식을 논의하였습니다.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종사자는 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고객센터·비(非)안전 업무종사자는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안전 및 서비스혁신, 계열사의 전문성 제고도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18년 8월 기준 전환방식이 결정된 근로자 중 2,329명인 34.4%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 4,440명은 용역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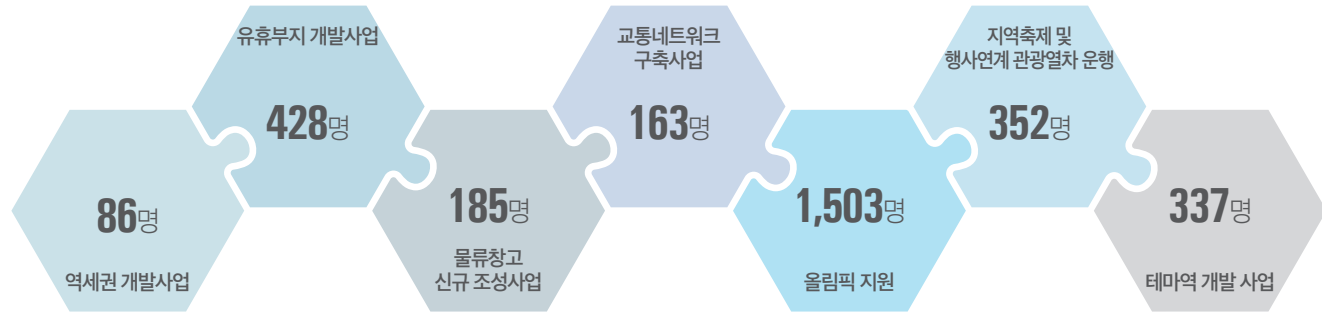
● '코레일형 직무급제' 도입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의 실질적 임금을 높이고, 전환 후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코레일형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노·노간 갈등은 개별 대표 면담을 통해 입장을 좁혔습니다. 임금체계는 기존 직무 등급 7등급에서 5등급으로 간소화하였으며, 단순노무종사원의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의 90%로 산정하여 최저임금의 102.9%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연수 및 평가를 통해 6단계로 임금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년을 만 65세로 정확히 명시하였으며, 승무원 숙사 등의 관리 직무는 근로자의 희망 여부에 따라 70세까지 1년 단위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철도 자산 활용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주요 자산 및 맞춤형 사업 발굴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유희부지 개발사업, 물류창고 신규 조성사업, 주차빌딩 신축, KTX 특송 도심택배 확대 등을 통해 862명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림픽 지원 사업, 지역축제·행사연계 관광열차 운행사업, 테마역 개발 사업 등의 맞춤형 관광자원 사업을 추진하여 2,1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만간 부문 일자리창출 현황



취업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노숙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자산인 역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노숙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수행하는 환경미화 사업을 부산역, 대전역 등 주요 역으로 확대하여 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역사 주차장 내 지역자활 센터 출장 세차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의 협의를 거쳐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을 철도역 안내 및 질서유지 도우미로 고용해 85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부산역 1층 상업매장의 운영권을 제공하며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우수 아이템을 가진 청년 매장 창업지원(7개소)을 통해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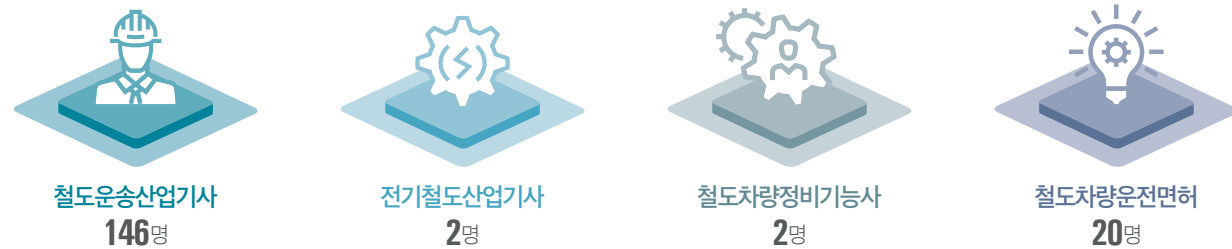
Best Practice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철도자격증 무상교육

코레일만이 할 수 있는 청년 취업역량 제고 활동을 고민한 끝에, '철도자격증 무상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철도자격증 무상교육은 코레일의 역·운전·차량·전기 등 각 분야별 교육장비와 내부 전문인력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철도운송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 디젤철도차량운전면허, 설비보전기사, 전기철도기사' 등 8종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코레일만의 차별화된 활동을 통해 공기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철도자격증 무상교육 실습현장



중요성과 관리 방향



공공부문에 대한 동반성장 및 상생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중요 역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코레일은 건전한 철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철도핵심부품 국산화 등의 활동으로 중소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사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대금지급프로세스 개선, 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및 도입, 갑질 규정 개선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협력사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8/19 핵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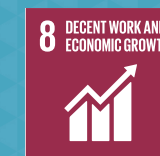
2018년
하도급자감이
우수기관
(조달청)

성과공유제 등록
63건
성과공유제 확인
44건

중소기업
동반성장
철도상생플랫폼
구축

협력사 갑질문구
175건 수정

Link to UN SDGs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협력사 동반성장

● 동반성장 추진전략

코레일은 철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심이 되는 코레일'을 목표로 하는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반성장 운영체계 확대를 통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코레일 컴패니언 클럽'을 신설하며 전사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레일 컴패니언 클럽은 기존 본사 담당자뿐만 운영되던 전담인력을 전국 24개 지역본부와 사무소로 확대한 조직으로써, 전국 각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동반성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전략



● 공동기술 개발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및 경영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기술지원 현장견학 및 방문 구매상담회, 협력사 경영지원을 위한 대출이자지원 '레일플러스상생자금제도' 출시, 철도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 구매상담회, 신규 협력사 발굴, 전통시장 구매운동, 소상공인 철도역 장터운영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채용 박람회, 장기재직자 포상금 지급, 물류협력사 수수료 인하, 협력사 환경재난사고 대비 환경전문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철도기술 실용화 지원사업	고용·산업위기 지역 구매상담회 개최	신규 협력사 발굴	전통시장 구매운동	소상공인 철도역 장터운영	협력사 장기재직자 포상금
11건	11회	29건	22회	20회	30개사

● 철도핵심부품 국산화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통한 철도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었습니다. 철도기술 국산화를 위해 15개의 국가 R&D사업에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며 철도기술의 공동 개발을 추진 하였고 철도 부품산업의 중소기업 초기 시장을 견인하고자 국산화 철도기술 개발품 197억 원, 신기술 16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201명 창출 및 철도 부품산업 시장 신규 조성·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도부품 국산화를 기반으로 한 강소·중소 기업 육성을 지원하며 철도산업의 상생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정사회 기반조성

● 공정거래질서 확립

코레일은 대금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이하 협력사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지급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며 50개 협력사에 대금 조기지급 지원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자금운영 지원을 확대하고자 선금지급일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계약금의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금 직접지급(하도급지킴이) 시행 범위를 기존 시설회사에서 모든 공사로 전면 확대하였고, 현장점검을 4회 실시하며 대금체불 전수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8년 하도급지킴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성과공유제 확산 및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협력 이익배분형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사-지역본부-협력사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컴패니언 클럽을 활성화하고 협력사업 실무자의 전담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재단과 협업하여 성과공유제 아카데미, 지역별 맞춤형 순회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성과공유제의 등록은 전년대비 394% 증대한 63건, 성과공유제 확인은 전년대비 880% 증대한 44건을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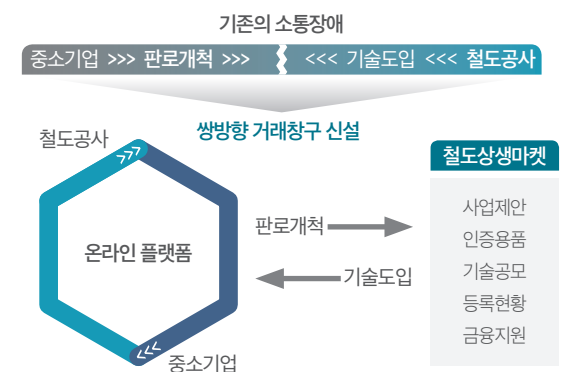
● 불공정 갑질 문화 개선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협력사 갑질유발 조사 및 법리 자문, 불공정 약관 컨설팅 운영 등을 수행하며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불공정 조건 문구, 재량권 남용 문구, 무한책임 문구 등 계약규정상의 갑질문구 175건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역사매장 임대계약 약관의 불공정 문구인 '월 최저하한 매출액 제도'를 폐지하며 49개 사에 54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초과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여 70개의 우수매장에 3,9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선도하여 계약투명성 전년대비 0.34점 향상, 계약책임성 전년대비 0.06점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Best Practice

민간 신기술 구매의 쌍방향 소통창구 '철도상생 플랫폼' 구축

코레일은 우수한 신기술을 지닌 중소기업이 철도기술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기술지원 포털인 '철도상생플랫폼'을 오픈하였습니다. '철도상생 플랫폼'의 도입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신기술신제품 등의 과제를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동반성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기술제안·공모, 기술개발품 홍보, 구매상담회 참여 신청, 철도안전용품 소개 및 신청, 금융·경영지원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중요성과 관리 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을 넘어 적극적 차원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재능 나눔', 업에 특화된 '행복나눔', 지역밀착형 '지역공헌'의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EO를 봉사단장으로 하는 코레일 사회봉사단을 통해 사회공헌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국에 펼쳐있는 철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코레일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2018/19 핵심성과



Link to UN SDGs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향상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지속가능도시 구축



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주요 성과

지역경제 고용유발 효과

2,192명

고용유발 효과

3,600억 원

*산출근거

- 생산유발(금액) : 관광지출액(관광객수명×103,719원)× 생산유발계수(2.0862) / 사회-경제적 가치연구(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 고용유발(인원) : 관광지출액(관광객수명×103,719원)× 고용유발계수(12.7명/10억원) / 사회-경제적 가치연구(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 지역관광 : 1,663,922명 수송(자유여행 712명, 올림픽 1,411,163명, 지역관광 515,647명)

주요 테마역 현황



분천역 '산타마을'
(연간 15만 명 방문)



득량역 '7080 추억여행거리'
(연간 4만 명 방문)



정동진역 '해맞이 플랫폼'
(연간 35만 명 방문)



삼탄역 '힐링숲, 마법학교'
(연간 1만 명 방문)

● 철도관광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수요 창출

철도 관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전용열차, 저렴한 관광 상품, 여행자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여행 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와의 협업으로 디자인 및 설비 등 열차 리뉴얼,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으로 철도연계 시티투어, 여행주간 상품 '만원의 행복', 올림픽 연계 5만원 특가 등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비엔날레 4곳과 연계한 관광 상품, 미술주간 전용 철도 패스 '미로랑(美路浪)' 등 특색있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코레일제휴형 종합여행플랫폼'을 개선하여 여행사 마진율 확대를 위한 판매수수료 인하, 인센티브 확대, 여행사 우수직원 포상제도 신설,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역 주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와 연계한 특화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팔도장터열차 등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 연계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천역 산타마을축제, 정동진역 해맞이 플랫폼 등 문화체험 레저공간으로 테마역을 조성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신규 테마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테마역은 리뉴얼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명사특강 '인문학열차',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숲으로 가는 열차' 등의 특색있는 지역문화 상품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고객들이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아픔 치유

코레일은 산불로 고통을 겪는 강릉지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4월에서 5월까지 모든 KTX 운임 요금을 30% 할인하였으며,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을 위해 낙산에 있는 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재난구호성금 1억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열차 관광상품 할인 등 'Again, Go East' 캠페인을 수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

● 추진체계

코레일은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철도시설과 직원재능 등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재능나눔', 업에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인 '행복나눔',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지역공헌'의 3대 핵심 분야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코레일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사회공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est Practice

청년·홀보듬맘*의 자립 지원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코레일은 사회 취약계층인 청년과 홀보듬맘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자산 활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과 기차역 먹거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테이션 청춘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매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보증금 면제, 구내매장 영업 컨설팅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 대전역에 1호점 '담다'를 개점하였고, '22년까지 25개의 스테이션 청춘카페를 개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홀보듬맘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첫 번째 매장인 '소당 한그릇'을 부산역에 개점하였습니다. 매장을 공동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코레일 최초의 사회적경제기업 인큐베이팅 성공 사례입니다. 향후 사회적 약자의 창업지원과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민의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미혼모의 순환 단어



'18년 12월 청춘카페 1호점 '담다' 개점



'18년 11월 '소당 한그릇' 1호점 개점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역사 공연



희망철도 해피트레인



연탄나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중요성과 관리 방향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경쟁력, 행복은 코레일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코레일은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와 직원 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몰입도 향상을 통한 직장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성취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가정 균형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19 핵심성과



Link to UN SDGs



보건 증진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향상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불평등 해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공정한 인사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 확립

코레일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고도화하기 위해 편견 가능성이 있는 정보, 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원천 배제하였고, 전형별 블라인드 확대를 통해 공정채용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투명성 및 채용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사규를 개정하여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였으며, 채용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시험 전 과정에 감사위원 입회, 엄선된 내·외부 감독관 투입, 면접위원 부정청탁·접수조작 방지 프로세스 도입 등 기존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엄격히 개선하였습니다.

전형별 블라인드 확대 도입

	기존	강화
투명한 채용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문에 직무소개서 포함 직렬별 모집인원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기학습 동영상 제작·게시 직렬·지역별 모집인원 공개 채용청탁금지 및 비리신고센터 안내
지원자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자격증 사본 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종류, 번호만 입력(개인정보 노출 차단) 불필요한 스펙입력란 시스템에서 삭제
필기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학습자료 제공 없음 수험표에 사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영역별 샘플문제 사전 공개 수험표에서 사진 삭제(이름, 생일만 기재)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위원 위주 면접 최초 부여된 수험번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전문가 50%이상 구성 면접대기실 입실 후 새로운 수험번호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코레일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우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위한 권역별 인재모집 확대, 고졸자를 위한 채용 직무 확대 및 조직적용 멘토·멘티제 운영, 장애인을 위한 가점 5점 신설 및 직렬별 채용 직무 발굴, 보호자를 위한 상이유공자 제한경쟁분야 신설 등 전형별 맞춤형 우대 방안을 도입하여 공공기관 최대 고졸자 채용, 역대 최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성과

고졸 채용		지역인재 채용		장애인 채용		보호자 채용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93명	556명	529명	1,131.5명	11명	106명	72명	154명
(89.7%)		(113.9%)		(863.6%)		(113.8%)	

● 인적자원개발 전략

코레일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의 인적자원개발 비전 하에, '조직몰입과 변화 관리, 직무전문가 육성, 교육 전문성·공공성 제고'의 3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교육니즈 및 성과환류에 기반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운영으로 구성원의 직무전문성 및 조직몰입도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체계적 인재양성

● 철도산업 선도 인재육성

철도산업을 선도할 직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핵심사업 역량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남북 철도 인력양성'의 방향으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였고 철도교육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본사 HRD담당자 기획역량 강화, 내부강사 교육 및 세미나 외부특강, 분야별 사외강사 인력풀 확대 등으로 교육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철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내 유일 철도교통 관제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국 HRD협회가 주최하는 '19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HRD)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구분	추진방향	추진실적
핵심사업 역량강화	운송 수요예측 및 수익관리 역량 개발	• 해외운영사 교육(5명) • 수요분석 과정 개설(40명)
	차량고장 제로화를 위한 철도차량 분야 명장 양성	• 기능장 취득반 운영(41명) • 학습동아리 운영(89명) • 제작사 위탁교육(해외 37명, 국내 70명)
신성장 동력확보	미래 철도산업 분야별 핵심기술력 확보	• 빅데이터·정보보안 등 전문위탁교육 시행(336명) • 차량·시설·전기 융합 전문가 과정 개설(76명)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 문화 정착·고도화	• 혁신 아이디어 제안제도(분기 1회) • 역대 최대 규모 대학(원) 교육생 선발(93명)
남북철도 인력양성	핵심인재 국제 경영능력 및 네트워크 조기 신장	•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파견과정 신설
	2급 이상 관리자 남북철도 개통대비 역량 제고	•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해외연수 시행(7명)
남북철도 인력양성	해외사업인력 복합, 유라시아 이해 증진	• 남북유라시아철도전문가 과정 개설(48명)

삶의 질 제고

작업장 환경 개선 활동

불안전요인 발굴

5,45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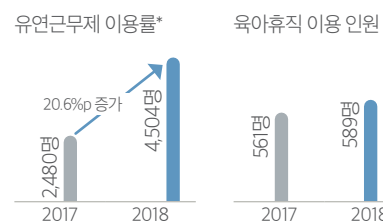
표지정비

2,214건

장애인 직원을 위한 동선 및 설비개선

30개소

주요 성과



● 안전문화 조성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사 산업안전보건 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실태조사, 분야별 안전작업 시연회, 작업장 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임직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건강검진 항목개편 및 비용 증액, 심리상담 네트워크 개편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취약 근로자인 장애인 직원을 위한 동선 및 설비개선 시행, 임신부를 위한 검진휴가 보장 및 일근 원칙 등을 수행하였으며, '18년 단체협약서에 취약근로자 차별금지 및 보호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업체를 지원하고자 공생안전협의체를 통한 안전 협력체계 강화, 안전관련 교육자료 및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 안전설비 확충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일·가정 균형 조직문화 형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장기간 근로 해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사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차출퇴근 유형, 단시간근무 유형'을 추가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자 남녀 모두 육아휴직기간 3년, 휴직 신청 시 승인 의무화, 불합리한 처우 금지, 연차부여 출근률 산정 시 출근 1년 간주, 승급 시 3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부 인정 등의 개선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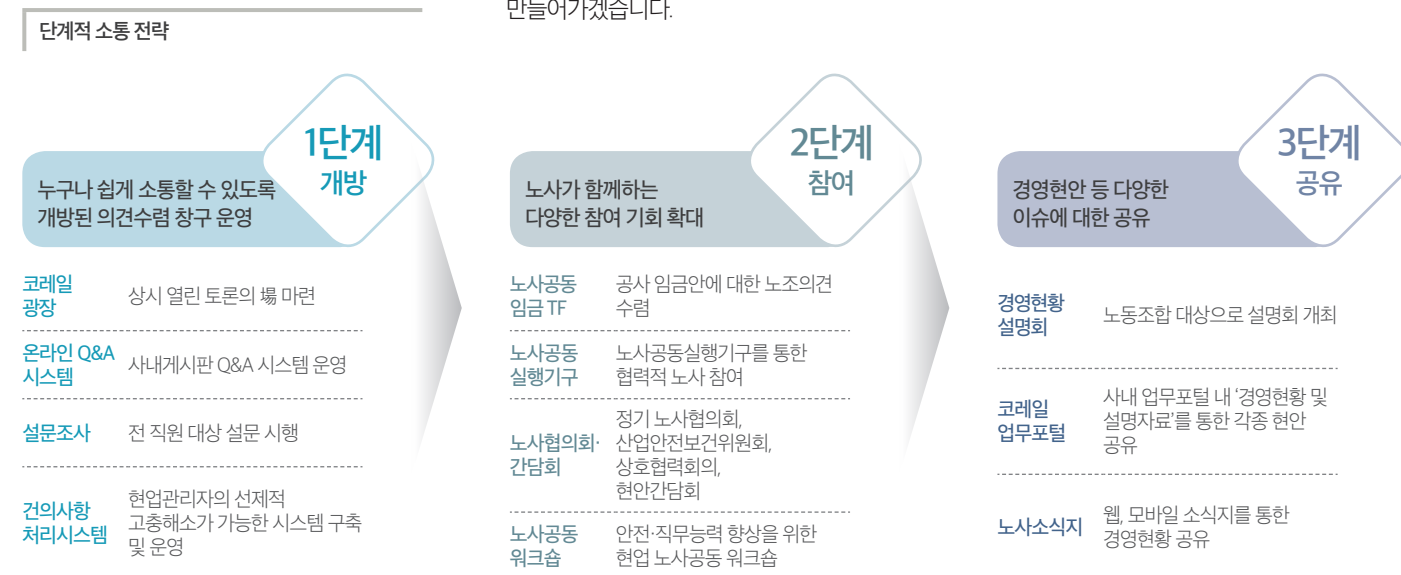
화합의 노사문화

●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

코레일은 화합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CEO와 노조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공동실현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실현기구는 노사간 소통 및 협력기구로서, 핵심 현안 및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대내외의 현안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노사공동위원회 신설, CEO 토론 및 간담회 확대, 현안별 단기 협의체 운영 등으로 노사 상호신뢰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방, 참여, 공유'의 단계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Best Practice

배려와 공감의 채용정책 도입

코레일에게 공정한 채용 절차 확립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입니다. 코레일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지원자 입장에서의 채용 프로세스 개선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채용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원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면접 응시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KTX 50% 할인권 2매 지급, 면접·인성검사 하루 동시 시행 등을 추진하였고, 최종합격 후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실기평가의 생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실기평가 학습 동영상 제작, 평가 전 개인별 연습시간 부여 등의 개선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필기시험 점수의 개인별 온라인 공개, 채용단계별 이의신청 시스템 개선, 온라인 Q&A 개설 등을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원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레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원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의신청·민원제기
ZERO
(지원자 108,846명)

채용비리 지적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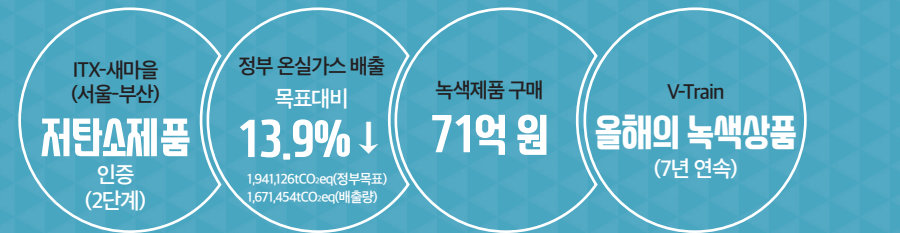
취업준비생 배려 부문
인사혁신
모범사례

중요성과 관리 방향



파리기후협약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 기후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기업에 요구하는 환경적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이행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등 규제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19 핵심성과



Link to UN SDGs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과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육상 생태계 보존 및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환경보고서 발간

코레일은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서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범세계적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해관계자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도'와 관련한 환경성과의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경경영보고서'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경영체계

● 환경 비전 및 전략

코레일은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해 '신(新)기후 체제 건설한 이행 및 환경운영·관리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환경경영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新)기후 체제 건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 인프라 통합 관리기반 구축, 철도 친환경 문화 정착'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12대 과제를 수립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환경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추진 조직

코레일은 환경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사 기획조정실 내 환경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현업 소속의 12개 지역본부, 4개 차량정비단, 8개 부속기관, 역, 952개 사업소 등과의 유기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온실가스-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목표보다 도전적인 자체 목표를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온실가스 산정 및 모니터링 검증체계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결과 정부 할당량 대비 26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자원순환 운동 및 철도소음 저감 활동

철도역사·열차 내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역사 내 편의점 등 1회용품 줄이기, 전사 개인 컵 및 손수건 사용, 대내외 회의 시 다회용품 사용, 녹색제품 우선 구매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이 포장재 변경, 비닐봉투 절감, 종이 빨대 도입, 녹색제품 기억 원 구매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철도소음 민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VOC 처리 업무 매뉴얼 개정, 저주파 소음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소음민원 상습발생 역사 집중관리, 심야 시간대 운행시간 조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미세먼지 관리 대응 체계 강화

쾌적한 철도 환경 구현을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 내 15개 공조설비 필터교체, 미세먼지 시범관리역사 6개역 관리, 지하터널 미세먼지 발생원 흡음판 제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2년까지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오염도 13% 감소, 철도차량 내 미세먼지 오염도 1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대책

환경시스템 정비

미세먼지 관리책임제, 상시측정 체계 구축 등 (4개)

역사 내 공기질 개선

공조설비 청소·개량 등 성능 확보, 역사청소기준 강화 등 (5개)

터널 내 공기질 개선

터널내 환기 가동시간 개선, 특수 청소장비 도입 등 (5개)

철도차량 관리

객실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차량 청소기준 강화 등 (4개)

비상 저감조치 대응

대기오염 배출 시설 가동시간 조정 등 (6개)



공기조화시스템 필터 교체

OUR APPROACH TO SUSTAINABILITY



이사회 구성

● 이사회 현황

코레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 경영감독 및 경영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CEO를 포함한 7명의 상임이사와 8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임 비상임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여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비상임이사 3명의 임명으로 이사회 내 여성비율이 20%를 차지하여 여성대표성이 제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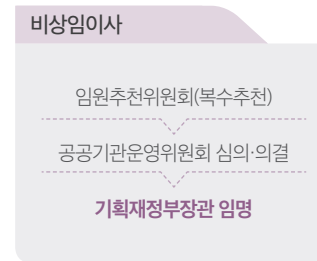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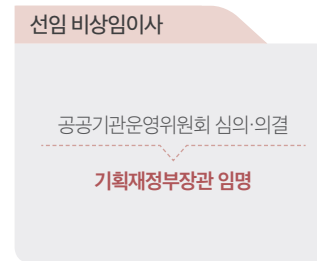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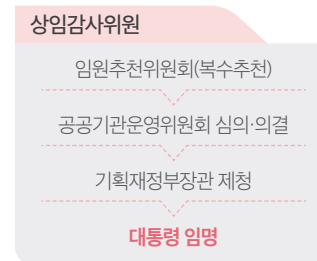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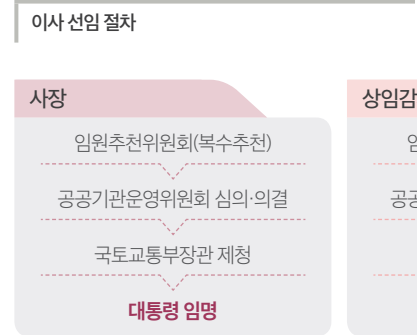
이사회 구성 현황 (2019년 7월 기준)			
상임이사			
성명	성별	직책	직위
손병석	남	사장	상임기관장
강성수	남	상임감사위원	감사위원
정왕국	남	부사장	상임이사
공 석	-	안전경영본부장	상임이사
양운학	남	여객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정현우	남	광역철도본부장	상임이사
조대식	남	기술본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성명	성별	주요 경력	직위
김정선	여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선임비상임이사/이사회 의장
김정근	남	(사)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사장	비상임이사
이종국	남	부산교통공사 사장	비상임이사
오건호	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비상임이사
이충남	남	(주)뉴 에너지 대표	비상임이사
박공우	남	법률사무소 시우 대표	비상임이사
김현민	여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비상임이사
강주언	여	(주)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연구위원	비상임이사

●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는 월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안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사 선임 절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명)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및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되고, 후보자 추천관련 제반사항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보자 모집 시 100% 공개모집, 이해관계자 후보추천 배제, 임원선임 종료 후 회의록 공개 등을 원칙으로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코레일의 경영, 정부정책, 환경 이슈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리스크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효율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이사회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목표로 경영건제 강화, 정책결정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석과 의사 개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심의로 경영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년 총 15회의 소위원회 개최, 38건의 안전 심의를 통해 기술형 입찰 블라인드 심사 기준 개선, 터널방재설비 일제점검 시행 등 경영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분	역할	구성
기획재정 소위원회	경영목표, 조직, 예산 등 정책 수립 관련사항 논의 및 의사결정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사업 소위원회	신규사업, 영업·수송정책, 안전 등 사업운영 관련사항 논의 및 의사결정	비상임이사 5인, 상임이사
감사위원회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비상임이사 2인, 상임감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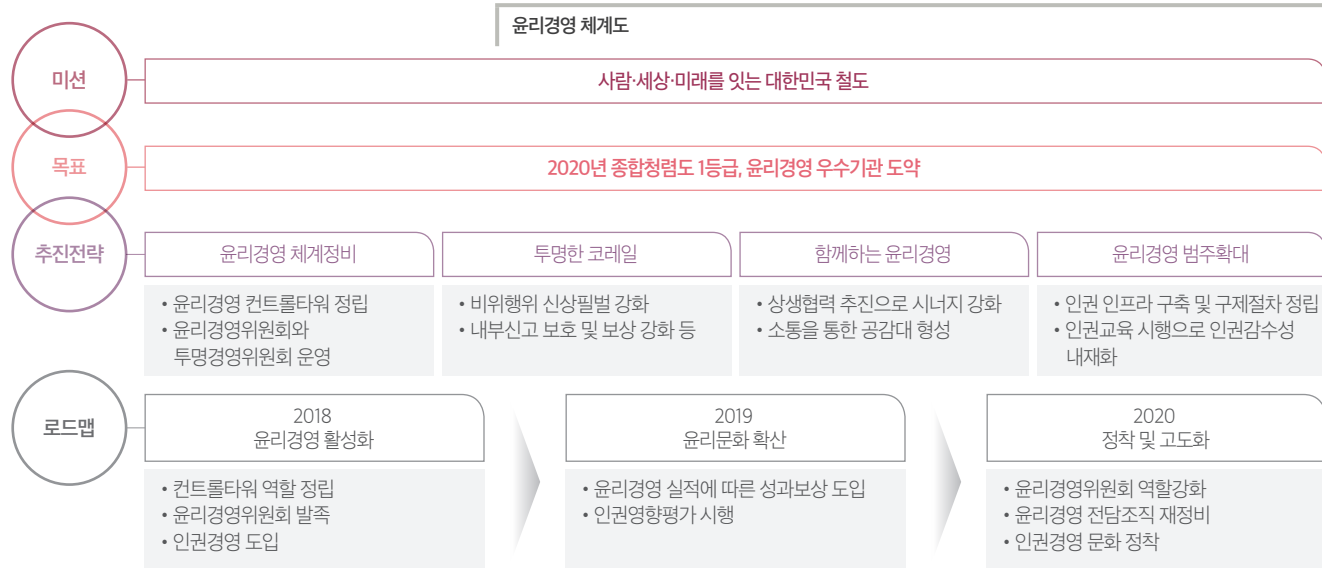
● 비상임이사 역할강화 및 전문성 활용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현장경영활동, 월별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 등을 시행해 철도분야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주요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별도보고를 시행하여 비상임이사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 안전 사전설명회를 이사회 개최 2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앞당기면서 비상임이사의 심도 있는 안전검토 환경을 지원하여 발언비중 및 정책제언 활성화로 비상임이사의 경영건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특강을 시행하는 등 비상임이사와 직원간의 소통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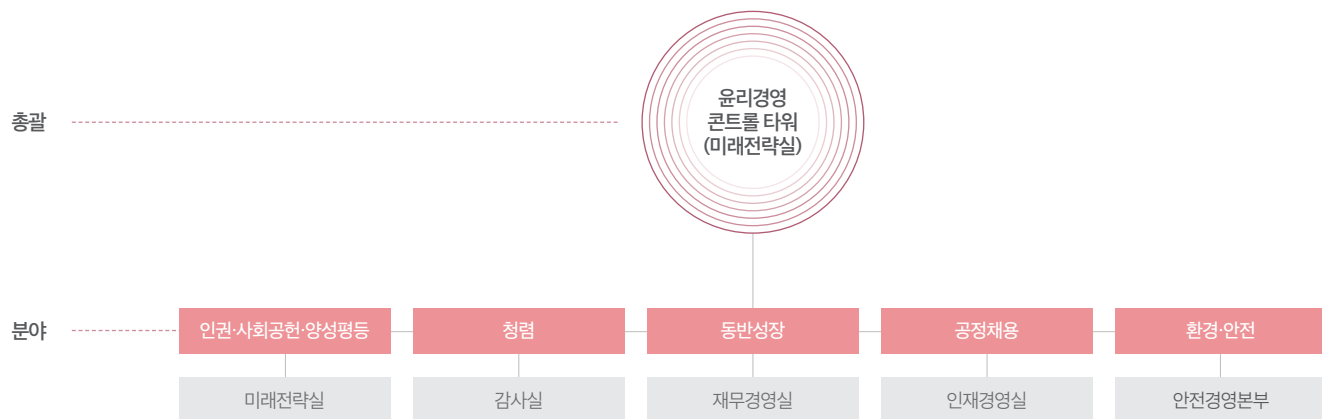
●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코레일은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종합청렴도 1등급, 윤리경영 우수기관 도약의 윤리경영 목표 하에 고도화된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엄격하고 자발적인 윤리적 행동을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사 조직역량을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에 집중하여 윤리경영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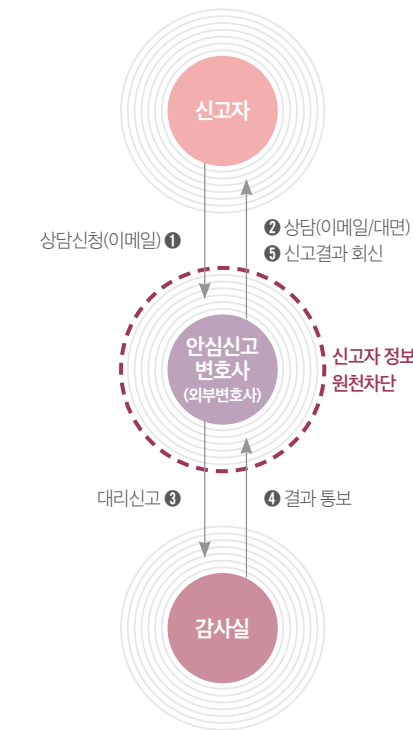
● 윤리경영 추진 조직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감사실, 재무경영실, 인재경영실, 안전경영본부로 구성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전반에 걸친 윤리경영의 확장과 내부건제 강화, 청렴업무 집중을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를 두어 윤리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경영위원회는 향후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활동 및 성과

안심변호사제 도입



● 교육을 통한 윤리경영 내재화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문화 확립

전사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수행하며 윤리문화 확립 및 윤리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초빙 청렴교육, 신규채용자 대상 청렴교육, 직고용 인원 대상 반부패제도 교육 등의 집합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윤리교육 확대를 위해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확대 및 튜터 선발요건 강화 등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위직 대상 CEO 청렴 특강, 상임감사위원 청렴특강,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 윤리교육에 대한 흥미를 더하고자 청렴연극 공연, 청렴메아리, 청렴웹툰 등을 활용해 윤리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협력사와의 동반청렴 실현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사와 소통하며 동반 청렴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대상 애로사항 수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사의 반부패 제도와 청렴시책 등을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217개 업체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코레일 부패 신고제도 등의 교육활동을 시행하였고, 협력사의 청렴 제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NGO,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과 청렴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

코레일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외부변호사의 대리 신고로 신고자의 정보를 원천 차단하여 익명성을 강화한 제도로 8건의 상담, 2건의 대리신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신고 모의체현, 현장청렴학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 신고로 인한 신분노출 우려가 전년 대비 7.1%p 감소하였고, 부패신고 의지는 1.3%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고 활성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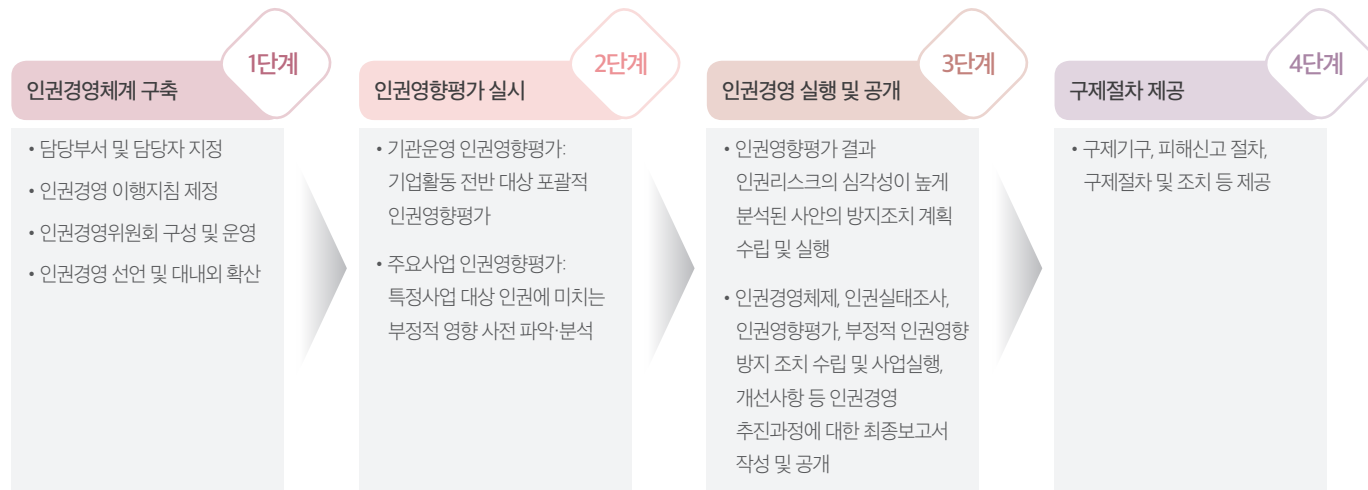
코레일은 자발적인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책고객,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책자 및 동영상,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다양한 신고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등 신고시스템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부패신고 위로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갑질 신고센터'를 도입하여 신뢰와 협력의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38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임직원 인권 존중

● 인권경영 추진

기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4단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헌장 제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구제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권경영의 조직적, 법률적, 제도적 기반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추진 4단계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분	구성
내부위원	CEO, 미래전략실장, 감사실장, 인재경영실장, 재무경영실장
외부위원	노동조합*(1), 인권전문가(2), 고객(1), 협력사(1), 취약계층대표**(1)

* 노동조합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외부위원에 포함

** 아동인권전문가 섭외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CEO를 포함해 노동조합, 인권전문가, 고객, 협력사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인권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

코레일은 성별, 학력, 장애, 나이, 경력, 사회적 신분, 혼인 등에 따른 차별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채용 및 보수, 복직후생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채용 유형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처우는 동종업계의 유사직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의 보수 제도를 적용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철도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여성 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양성에 힘써 조직 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대외 여성 리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리스크 관리 체계

● 리스크 유형 및 전담부서

코레일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형별 리스크 유형을 분류하고, 각 리스크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위기와 재난위기로 리스크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위험요인의 사전 관리 및 사후 즉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유형별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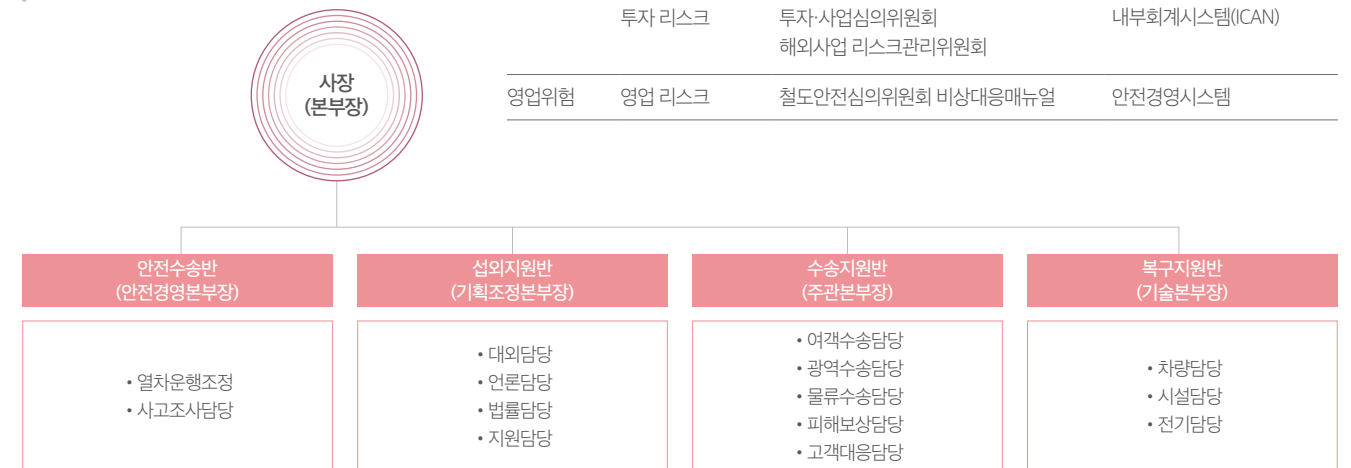
●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비상대책기구

철도운영에 관한 재무·비재무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투자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전략위원회, 금융위험관리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철도안전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며 철도운영에 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재무위험 관리시스템

위험구분	관리대상	제도·규정	관리시스템
재무위험	시장 리스크	금융위험관리규정 / 위기대응매뉴얼	영업정보시스템(BS)
	유동성 리스크	내부회계관리규정	전자자원관리시스템(KOVIS)
투자위험	금융위험관리위원회 / 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금융위험관리위원회 /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종합금융정보시스템(KoFIS)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회계시스템(ICAN)
영업위험	영업 리스크	철도안전심의위원회 비상대응매뉴얼	안전경영시스템

재난위기 발생 시 비상대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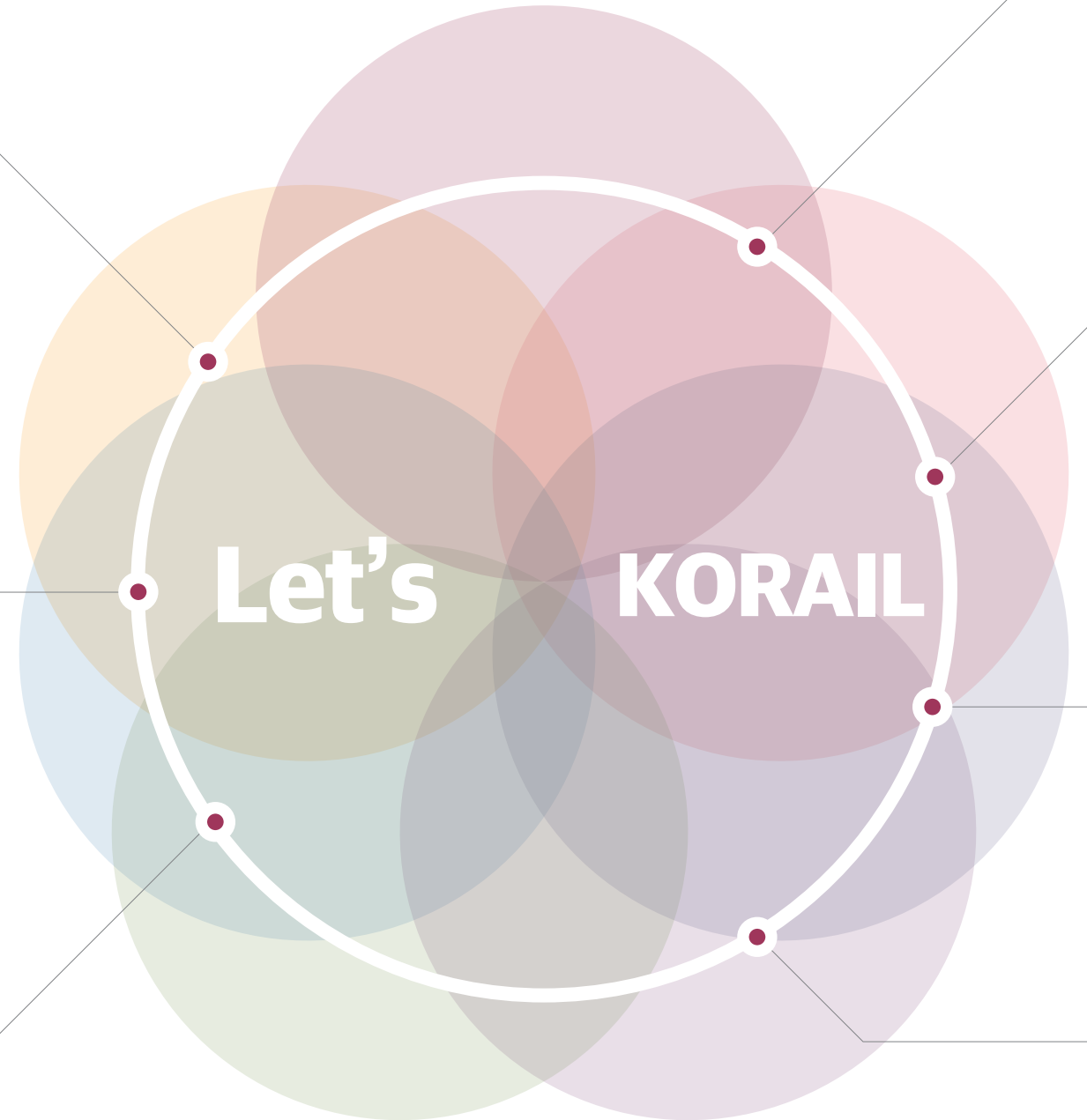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의 성향을 관심도와 영향도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노조, 협력업체/이용고객, 대국민/지역사회, 정부·국회/언론 등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그룹의 특성에 맞는 소통방향과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018년 이해관계자그룹의 재구성을 통한 신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혁신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소중한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인프라 공유 국민 참여 확대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채널 강화 및 제안·공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명칭, 신사업 등 국민의견 적극반영 코레일톡 토털 여행서비스 구축 등 청춘카페, 미혼모 자립 카페 등 창업 공공택시 철도연계, 급행전철 확대 등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행복코레일 실천단/봉사단 KTX 차내 코레일 뉴스 송출 시민참여혁신단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참여 실현

지역사회 NGO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기여 사회적약자창업 지원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채널 강화 및 제안·공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명칭, 신사업 등 국민의견 적극반영 코레일톡 토털 여행서비스 구축 등 청춘카페, 미혼모 자립 카페 등 창업 공공택시 철도연계, 급행전철 확대 등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관리협의회 코레일사회봉사단 소비자·시민단체간담회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과 지역사회활성화

정부·국회 / 언론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이행 공공성 강화 철도안전 국가행사지원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도 제고 위한 직접 방문설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림픽 비상체제로 성공적 수송 지원 청년일자리 박람회, 청년장병 드림열차 철도건설 및 시설개량 관련 개선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산하기관협의회 기자간담회 철도현장설명회 철도발전협력단 교통기자단 간담회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과 지역사회활성화



임직원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와 가정 양립 워라밸 실현 철도안전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현안공유 협력·협업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차출근제, 가정의 날 등 탄력근무 확대 선로접근 차단 인프라 등 개선 前 KTX승무원 특채, 해고자 복직 쟁의 없는 평화적 임금·단체협약 체결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레일 광장 주니어보드 CEO혁신소통 노사공동실행기구 코레일 그룹포털 노사공동위원회 철도발전위원회 勞·使·專협의기구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권보장 안전환경권 보장

노동조합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간 갈등 해소 해고자 복직 등 목은 현안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현안공유 협력·협업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차출근제, 가정의 날 등 탄력근무 확대 선로접근 차단 인프라 등 개선 前 KTX승무원 특채, 해고자 복직 쟁의 없는 평화적 임금·단체협약 체결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레일 광장 주니어보드 CEO혁신소통 노사공동실행기구 코레일 그룹포털 노사공동위원회 철도발전위원회 勞·使·專협의기구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상생

협력업체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기술개발 갑질문제 근절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반영을 위한 제도적 채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권 개선 및 모바일 명절예매 도입 임산부, 다자녀 등 공공할인 확대 내규, 계약서 등 갑질문구 개정 '교통카드사업' 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조달시스템 협력사간담회 성과공유아카데미 동반해외진출 협력업체와 상생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경영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이용고객		
주요 관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서비스 IT기반 편의성 향상 	의견반영
소통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반영을 위한 제도적 채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권 개선 및 모바일 명절예매 도입 임산부, 다자녀 등 공공할인 확대 내규, 계약서 등 갑질문구 개정 '교통카드사업' 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주요 소통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서비스평가단 고객센터(전화) CEO열린대화 	사회적 가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권 보장

이해관계자 인터뷰

“친환경 철도 물류사업의 증대”

삼익물류(주) **김동훈** 본부장

철도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시설에의 투자 확대,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우호적인 관계 구축 등의 전략을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철도 물류사업과 관련한 친환경적 철도정책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화물부문의 철도 부담률을 늘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서 코레일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환경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익성과 효율성의 논리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인 물류사업을 해나가길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코레일이 되기 희망합니다.



“신규 차량 도입 등 안전을 위한 투자 증대”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이슈는 '안전'입니다. 열차의 정비에서부터 정시 운영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 임직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차원에서 신규 기술이 적용된 차량 도입 플랜을 수립한다면 안전 이슈 뿐만 아니라 열차 소음 및 차내 환경 관리, 다양한 서비스 제공, 탄력적 요금 운용 등도 폭넓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동력분산식 열차의 도입부터 수소열차, 더 나아가 시속 1,200km로 달리는 초음속 자기부상열차인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열차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열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수익성과 서비스 개선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기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사기업 못지않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나아가길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적응 필요”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김형준** 교수

급격한 환경 변화, 특히 기술적인 환경 변화가 철도의 인프라와 관리 방식, 마케팅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에서, 10년 이후의 철도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사업 구조의 변화, 내부 시스템의 고도화, 고도화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아 인프라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며, 체험형 소비 패턴에 맞춘 마케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진전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및 조직 내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안민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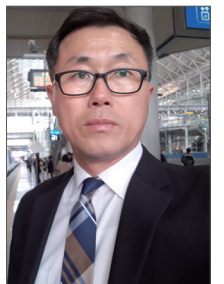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망과 역사라는 물리적 네트워크 자산을 가진 공기기업입니다. 따라서 코레일만이 가진 핵심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리적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융합한 고객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열차, 역사 등의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역사 주변에서 다양한 경험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상인과 협력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여성 고객을 위한 파우더룸 설치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레일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비즈니스 플랫폼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훌륭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사고를 통해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전라남도 관광과 **김명신** 과장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 개선, 지속적인 철도망 확충 등 간접경제효과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 존속의 기본 틀인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시대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등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지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철도산업도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레일도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의 거시적인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인구, 산업 발전 정도, 교통 역량, 방한 관광객의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적더라도, 미래에 가치를 두고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코레일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박미애**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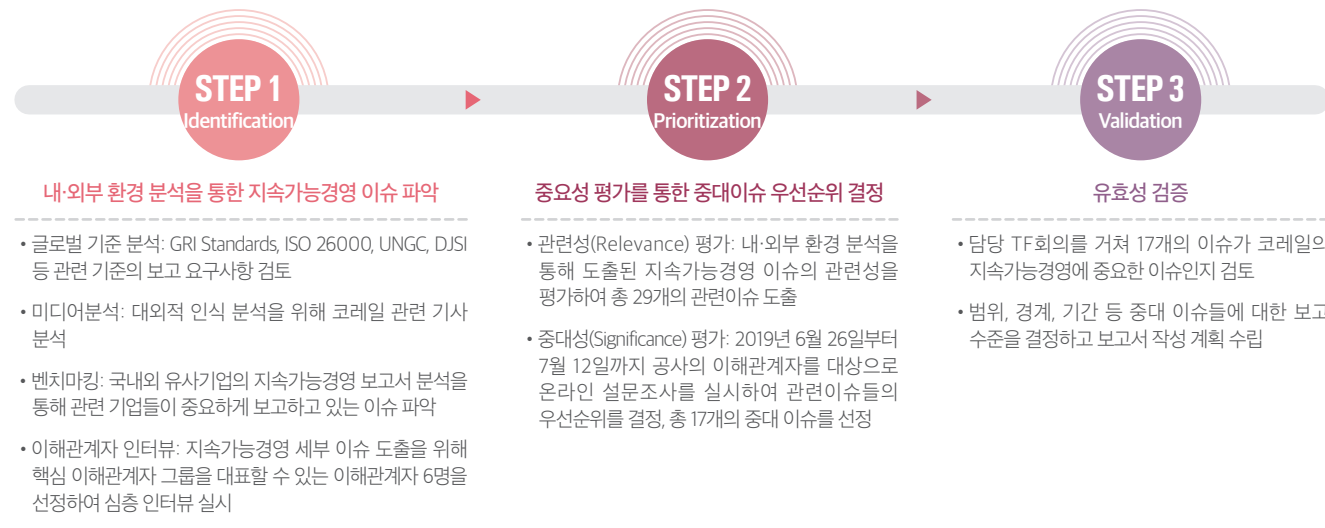
코레일은 철도체험학습장, 코레일 빌리지, 코레일 심포니오케스트라, 해피트레인 등 광범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공기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 중 코레일만이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회공헌 활동은 해피트레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방향이 지역 사회 공동체가 가진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코레일 역시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낮은 출산율 및 어린이 놀이공간 부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의 폐역사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외계층 아동 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기관사, 기계설비사 등의 자격취득을 지원해 코레일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코레일이 앞장선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코레일은 ISO 26000과 GRI Standards에서 권고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Context), 중대성(Materiality), 완전성(Completeness), 이해관계자 참여(Stakeholder Inclusiveness) 원칙에 근거해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코레일의 지속가능성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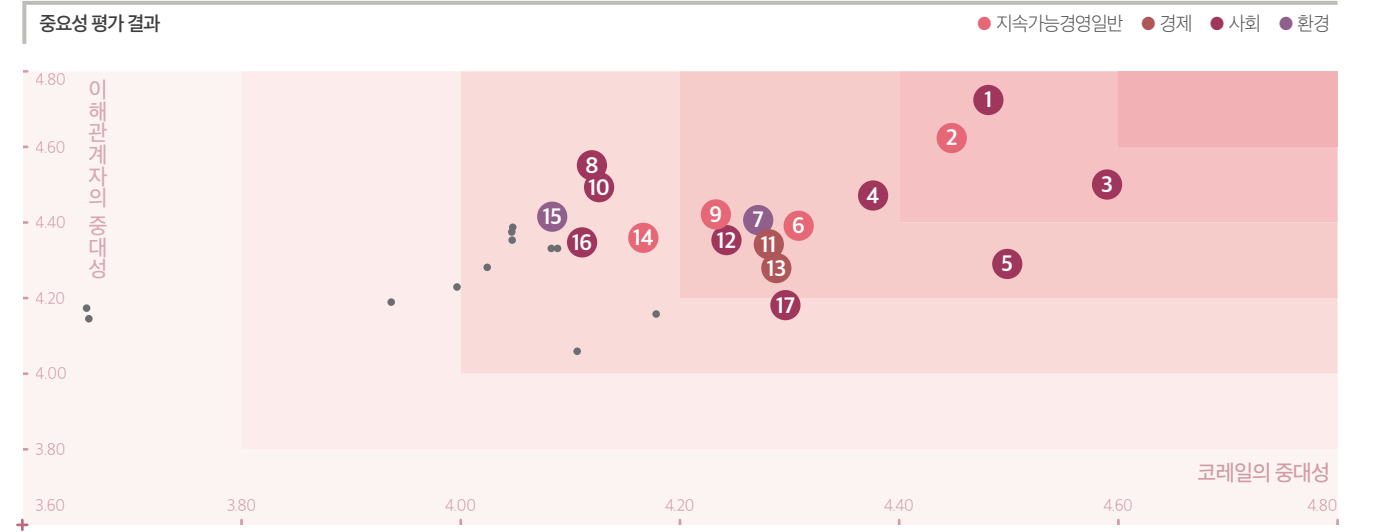
이해관계자 상위 10대 이슈

설문조사를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코레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외부이해관계자는 '고객 안전보건'을, 내부이해관계자는 '직장의 안전 및 보건'을 선정했듯이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을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 결과

코레일의 이해관계자들은 코레일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코레일은 중대성 평균이 높은 17개를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코레일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중요하게 선택한 주제에는 '고객 안전보건', '윤리 및 법규 준수', '직장의 안전 및 보건',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일과 삶의 균형' 등과 같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 및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슈들이 상위로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인권존중과 지배구조 이슈는 전년도 대비 순위가 많이 상승하였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실내 공기질 관리 및 리스크 관리 이슈가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요 이슈 및 보고서 목차 구성

No.	중요 이슈	보고서 목차	보고 경계	'18년 순위
1	고객안전보건(안전한 철도 운행, 차량 및 시설 안전성 확보)	안전한 철도	내부	1
2	윤리 및 법규 준수	윤리경영	내부	5
3	직장의 안전 및 보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내부	8
4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내부	21
5	일과 삶의 균형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내부	7
6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전문성	지배구조	내부	19
7	실내 공기질 관리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철도	내부	신규
8	고객만족제고(스마트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등)	편리한 철도	외부	2
9	경제·사회·환경적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내부	신규
10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	안전한 철도	내부	14
11	공정한 계약 및 조달(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공정가격입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내부	11
12	임직원 다양성 존중 및 평등한 기회 제공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내부	17
13	미래 신성장사업 확대(미래 핵심기술 내재화, 해외/남북 철도 사업, 다원사업 등)	미래의 철도	내부	9
14	이해관계자 참여(소통채널 확대, 관심사 대응)	이해관계자 참여	내부/외부	10
15	환경운영관리 강화(친환경경영 추진, 환경법규 준수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철도	내부	12
16	임직원 교육 및 훈련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내부	신규
17	상생적 노사관계 추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	내부	20

APPENDIX

○ 지속가능경영 성과

○ 제3자 검증의견서

○ GRI & ISO 26000 Index

○ UN SDGs & UNGC

○ 수상실적 및 가입단체

○ 지속가능경영 보고조직

지속가능경영 성과

경제성과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자산	유동자산	10,961	17,134	16,267
	비유동자산	174,168	181,649	204,901
	자산총계	185,129	198,783	221,168
부채	유동부채	29,086	28,545	38,558
	비유동부채	108,355	120,262	116,974
	부채총계	137,441	148,807	155,532
자본	납입자본	101,039	102,463	103,168
	결손금	(83,877)	(92,279)	(93,479)
	기타자본구성요소	29,305	38,394	54,335
	비지배지분	1,221	1,397	1,611
	자본총계	47,688	49,976	65,636

요약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매출액	억 원	56,936	57,867	63,268
매출원가	억 원	52,324	59,177	60,101
매출총이익	억 원	4,612	(1,310)	3,167
판매비와관리비	억 원	3,396	3,389	3,506
영업이익	억 원	1,216	(4,699)	(339)
기타수익	억 원	340	146	233
기타비용	억 원	529	901	709
기타이익(손실)	억 원	563	(1,402)	1,140
금융수익	억 원	455	1,324	645
금융원가	억 원	4,543	5,285	4,530
관계기업과공동기업관련이익	억 원	178	(811)	205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순이익(손실)	억 원	(2,320)	(11,628)	(3,355)
법인세비용	억 원	(55)	(3,073)	(2,305)
계속영업순이익	억 원	(2,265)	(8,555)	(1,050)
중단영업순이익	억 원	-	-	-
당기순이익(손실)	억 원	(2,265)	(8,555)	(1,050)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억 원	(2,058)	(8,744)	(1,267)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억 원	(207)	189	218
기타포괄손익(세후)	억 원	1,324	9,453	16,007
총포괄이익(손실)	억 원	(941)	898	18,899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억 원	(734)	716	14,735
비지배지분	억 원	(207)	182	221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배분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비고
경제적 가치 창출(A)	억 원	55,587	52,853	58,690	-
매출액	억 원	53,651	50,572	55,545	-
금융수익, 자산매각 등	억 원	1,936	2,281	3,145	-
분배된 경제적 가치(B)	억 원	52,583	52,535	53,732	-
임직원	억 원	22,327	26,499	24,824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협력사	억 원	24,868	24,219	26,352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등
투자자	억 원	4,174	3,880	3,714	이자비용
정부기관	억 원	203	(2,914)	(2,069)	국세, 법인세, 지방세 등
고객/지역사회	억 원	1,011	851	911	사회공헌, KTX공공할인 등
잉여 경제적 가치(A-B)	억 원	3,004	318	4,958	-

사회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임직원						
	총 임직원 수	명	26,394	26,352	26,983	
	기간제 근로자 직원수(여)	명	186(27)	70(2)	55(1)	
고용	연령별 직원 수	25세 미만	명	33	186	309
		25~34세	명	2,163	2,604	3,824
		35~44세	명	7,645	6,677	6,040
		45~54세	명	12,296	12,619	12,634
		55세 이상	명	4,257	4,266	4,176
	장애인 고용(의무고용률 3.2%)	명(%)	847(3.1)	858(3.1)	920(3.2)	
	고령자 고용(의무고용률 6.0%)	명(%)	4,955(18.0)	5,521(19.7)	4,191(14.5)	
	평균 근속 연수	년	19.2	18.6	17.8	
채용	연령별 신규채용	총 신규채용 인원 수	명	599	1,059	2,185
		20세 이하	명	0	106	91
		21~25세	명	187	416	648
		26~30세	명	310	436	976
		31~35세	명	75	75	210
		36~40세	명	16	18	138.5
		41세 이상	명	11	8	121.5
	지역별 신규채용	명	265	531	1,053.5	
	비수도권	명	334	528	1,131.5	
퇴직	퇴직율(%)	%	1.8	2.0	2.6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여성인력	여성 직원 수	명	2,815	2,974	3,230
	여성 고용(의무고용률 9.97%)	%	10.46	10.64	11.16
	여성관리자 수(비율)	명(%)	274(8.10)	288(8.58)	322(9.37)
	신규 채용 여성수(비율)	명(%)	98(16.4)	218(20.6)	402.5(18.4)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전환)	명	150	183	271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집약근무형)	명	689	2,297	4,326
육아휴직제	여성 사용 현황	명	398	414	399
	남성 사용 현황	명	126	147	190
교육	교육예산	백만 원	8,451	8,051	8,373
	1인당 교육비	천 원	320	306	303
	정규 교육인원	명	75,957	78,094	53,686
	교육 과정	개	508	507	530
이사회					
	개최횟수	회	18	12	13
운영실적	의결안건	건	33	22	37
	참석률	%	93.7	90.2	93.2
	사전심의율	%	100	100	100
	수정의결 안건(비율)	건(%)	3(9.1)	1(4.5)	3(6.3)
	보고안건	건	15	9	11
소위원회	개최횟수	회	1	13	15
	상정안건수	건	2	29	38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	69.6	57.0	65.0
노사관계					
협력	노사협력수준	점	3.19	3.35	3.52
윤리 및 인권					
반부패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	2	1	2
인권	내부신고	건	15	30	51
청렴	종합청렴도	점	7.68	8.18	8.24
고객					
고객만족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등급	A	S	A
커뮤니케이션	불만 VOC 접수현황	건(%)	15,468(35.9)	13,373(28.7)	11,941(29.8)
정시운행률	고속열차 정시운행률	%	99.87	99.76	99.79
	일반열차 정시운행률	%	99.03	98.14	99.30
협력사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억 원	6,310	8,014	7,269
	중소기업 구매 비율	%	76.2	76.0	80.8
	성과공유 사업실적	건	13	16	64
	협력이익공유 사업(18년부터 시행)	건	-	-	1
지역사회					
기금조성	러브펀드	백만 원	639	603	588
	매칭 그랜트	백만 원	630	589	639.7
봉사시간	지역봉사단 봉사시간	천 시간	22,7997	246,964	194,878
	1인당 봉사시간	시간	11.5	12	15
사회공헌	코레일빌리지 수혜인원	명	2,444	4,202	1,818
	철도체험학습장 체험인원	명	29,156	42,591	36,685
	코레일오케스트라 공연횟수	회	9	11	8

지속가능경영 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사회공헌	해피트레인 운영 횟수	회	109	193	236	
	수혜 인원	명	10,950	11,765	12,547	
	노숙인 희망 프로젝트 참여	명	20	40	40	
	취업 성공	명	9	13	11	
공공할인 서비스	노인 할인	인원 천명	7,815	7,375	7,858	
	할인금액	억 원	372	331	361	
	어린이 할인	인원 천명	4,172	3,728	3,792	
	할인금액	억 원	536	464	476	
	장애인 할인	인원 천명	4,445	3,927	3,946	
	할인금액	억 원	364	307	309	
국가유공자	인원 천명	406	341	348		
	할인금액 억 원	90	71	70		
안전						
안전관리	안전관리율	건/백만km	1.567	1.386	1.215	
	휴먼에러율	건/백만km	0.540	0.388	0.342	
투자	안전투자	억 원	6,424	7,291	8,343	
교육	직무역량 교육	법정 재난안전관리 교육	명	40	62	47
		초기대응 통합교육	명	40	61	90
		안전담당자 CDP교육	명	51	88	160
		안전 직무교육	명	114	161	198
	정신건강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	명	194	324	176
		찾아가는 심리상담	명	174	253	70
	철도안전 적성검사	성격알기 가족 프로그램	명	107	153	143
		최초검사	명	2,332	2,718	3,565
안전문화	정기검사	명	17,469	1,904	1,058	
	안전문화 수준평가*	점	85.1(2015)	79.6	80.4	
사고	여객·공중사상사고	명	90	66	58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	0	0	0	
	사이버 침해사고	건	0	0	0	

* 안전문화 수준평가는 2년 주기로 시행하였으나, 2018년부터 매년 시행으로 변경

환경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투자						
환경시설 투자	수질	건수(신설)	건	26(1)	23	
		금액	백만 원	430	278	270
	대기	건수(신설)	건	3	7	15
		금액	백만 원	150	23	114
	토양	건수(신설)	건	5	7	9
		금액	백만 원	134	330	966

지속가능경영 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환경시설 투자	폐기물	건수(신설)	건	4(1)	5	9
	금액	백만 원	99	180	412	
녹색제품구매	녹색제품 구매 금액	백만 원	2,868	2,589	7,126	
	녹색제품 구매율	%	98.29	93.74	89.15	
교육						
교육	자체교육	회(명)	4(107)	3(90)	3(105)	
	외부기관 교육	회(명)	15(123)	15(78)	17(135)	
환경영향관리						
에너지 사용량	철도운전용 경유	TJ	4,351	4,223	4,207	
	철도운전용 전력	TJ	22,187	21,908	22,780	
	생활전력	TJ	3,796	4,012	4,439	
	냉·난방연료	TJ	284	278	324	
	업무용 자동차	TJ	68	72	73	
	계	TJ	30,686	30,493	31,823	
온실가스 배출량	철도운전용 경유	tCO ₂ eq	338,353	328,384	327,131	
	철도운전용 전력	tCO ₂ eq	1,077,553	1,064,013	1,106,380	
	생활전력	tCO ₂ eq	184,363	194,870	215,583	
	냉·난방연료	tCO ₂ eq	15,137	14,859	17,197	
	업무용 자동차	tCO ₂ eq	4,901	5,054	5,164	
	계	tCO ₂ eq	1,620,307	1,607,180	1,671,455	
감축량	배출허용량	tCO ₂ eq	1,900,962	2,000,571	1,941,126	
	배출량	tCO ₂ eq	1,620,307	1,607,180	1,671,454	
	감축률	%	14.76	19.66	13.90	
수질오염물질 처리	폐수처리량	m ³	281,911	189,041	232,935	
	객차오수량	m ³	79,171	82,058	71,879	
폐기물 처리	일반폐기물	톤	1,255	1,496	29,187	
	지정폐기물	톤	1,487	1,179	1,532	
소음	지면 위	낮	Leq dB(A)	57	56	58
		밤	Leq dB(A)	54	54	53
	최고치 예상층	낮	Leq dB(A)	59	59	59.5
		밤	Leq dB(A)	57	57	58.5
실내공기질						
철도역사	미세먼지	지하	µg/m ³	68	69	78
		지상	µg/m ³	56	61	69
	이산화탄소	지하	ppm	507	523	527
		지상	ppm	493	488	571
	포름알데하이드	지하	µg/m ³	11	9	24
		지상	µg/m ³	10	12	18
일산화탄소	지하	ppm	1	1	1	
	지상	ppm	1	1	1	
철도차량	미세먼지	광역철도	µg/m ³	56	66	77
		일반열차	µg/m ³	66	55	60
	이산화탄소	광역철도	혼잡 ppm	989	1,048	1,241
		평상	ppm	1,260	1,263	1,394
	일반열차	혼잡	ppm	1,243	1,225	1,163
		평상	ppm	1,455	1,351	1,365

제3자 검증의견서

한국철도공사 경영진 귀중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의 '2018-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을 제출합니다.

● 책임성 및 목적

본 보고서에 포함된 지속가능경영 성과 정보와 모든 서술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있습니다. 검증인은 보고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나 편견, 정보수집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가능경영 이슈 도출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보고서 품질 개선을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검증유형 및 수준

검증인은 본 보고서 검증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AA1000AP(2018), ISAE3000, GRI Standards 을 참조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보고서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성과 및 목표
검증유형 및 수준	Type II - 중위수준(Moderate level)
검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A1000AP(2018) 4대 원칙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한 'IPS Assurance Manual'TM ISAE3000 기반의 성과지표 신뢰성 검토를 위한 'IPS Performance Indicators Assurance Criteria'TM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Core Option) 방법

● 검증절차 및 수행업무

검증인은 다음 절차를 통해 ①보고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영향도 원칙 적용 여부, ②수룩된 성과정보의 신뢰성, ③GRI Standards 부합 방법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사의 중요 이슈 도출 프로세스 및 결과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검토
- 재무제표를 제외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정량성과 원천 데이터 표본 검토
-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주요 정성성과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 보고서 내용의 GRI Standard 지표 적용 확인

검증인은 검증절차 수행과정에서 공사 내 보고서 작성 담당자와의 서면질의 및 답변서 확인,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공사의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검증인의 수정요청과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하였습니다.

● 검증의견

검증인은 서면질의 및 답변서 확인, 현장 인터뷰를 통해 공사와 보고서 수정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수정요청 및 권고 사항 반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서의 최종본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인은 보고서에서 다음 검증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그리고 검증 범위에 포함된 성과정보와 진술, 주장 등에서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담겨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포괄성_Inclusivity]

한국철도공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과 프로세스는 적정한가?

검증인은 공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는 이해관계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대성_Materiality]

보고서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공사가 이해관계자와 공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적절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과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공사가 채택한 표준화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공사의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_Responsiveness]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제3자 검증의견서

검증인은 공사가 핵심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한 의견을 중심으로 중요 보고 이슈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테마를 구성하는 'Let's KORAIL'과 'KORAIL Core Values', 'KORAIL Social Values'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공사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향도_Impact]

한국철도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공사가 보고서를 통해 고유사업 추진 단계에서 '브랜드가치 평가', '안전문화 수준 평가', '부품 국산화를 통한 고용유발 효과 분석',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환경안전, 사회적 영향도를 적절히 측정·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부합 방법]

검증인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일반공시표준(GRI 102)의 핵심적 부합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GRI Standards: Core option)

[성과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인은 보고서에 포함된 성과정보에서 공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이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인이 확인한 주요 성과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고의견

검증인은 보고서가 ①공사의 '경영가치체계' 및 '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체계'와 연계한 핵심 주제를 반영하였고, ②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통해 공사 내·외부의 주요 관심사안을 적절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③사회적 가치 창출, 인권경영,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UNGC 원칙 등 국내외 지속가능성 아젠다를 중심으로 공사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명확성(Clarify): 경영관리 결과(outcome)로 나타나는 각종 영향(impact), 효과(effect) 등에 관한 산출 근거 및 산식 또는 사용 계수에 대한 근거 설명
- 정확성(Accuracy): 집계시점, 공시대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인원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 관리 체계 확보



● 검증인의 독립성

검증인은 공사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 이외에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검증인의 적격성

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이며, 보고서 검증에 참여한 검증단은 경영, 회계, 환경, 사회적 전공자로서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사)산업정책연구원 대표이사 이사장
김태현

카테고리	이슈	성과정보
안전한 철도	고객안전보전	2018년 안전운행서비스 지표: 1.215건(고객피해건수/백만Km) 2018년 휴먼에러율: 0.342(취급부주의 건수/열차주행거리 백만km), 안전관리율: 1.215(고객피해 건수/열차주행거리 백만km), 안전문화 수준평가: 80.4점
편리한 철도	고객만족 제고	2018년 철도 연계교통 관련 철도 이용고객 설문조사: 만족 57.1%, 보통 39.3%
미래의 철도	미래 신성장사업 확대	2018년 자산활용영업이익: 3,651억 원
협력사와 동반성장	공정한 계약 및 조달	2017-2018년 계약투명성 향상: 0.34점, 계약책임성 향상: 0.06점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철도	실내 공기질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전담 조직 구성 현황
윤리경영	윤리 및 법규 준수	2018년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관리 현황

* 17개 이슈에 관한 정성(34개) 및 정량(13개) 성과지표를 검토하였으며 검증의견서에는 일부 성과지표만 기재

1) AA1000 - Accountability Principles 2018: 영국 소재 비영리 단체인 AccountAbility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개발의 검증을 위해 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표준 시리즈로서 검증 원칙을 설명. 지난 2018년 기준 AA1000APS(2008)에 영향도(Impact) 원칙을 추가하여 개정함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
3) GRI는 1997년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정한 국제 비영리 기구로서 2000년 다국적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 2000년 공급망, 지배구조, 윤리 및 청렴도, 반부패, 온실가스 및 에너지를 중심으로 개정된 G4를 거쳐 2016년 GRI Standards로 보다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

GRI & ISO 26000 Index

Universal Standards			
GRI 102: General Disclosures			
Disclosures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Organizational profile			
102-1	조직명	14	●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4	●
102-3	본사위치	14	●
102-4	사업 지역	14	●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14	●
102-6	시장 영역	15~17	●
102-7	보고 조직의 규모	6.3.10/6.4.1-6.4.2/6.4.3/6.4.4/6.4.5/6.8.5/7.8	14~15 ●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54, 74~75	●
102-9	공급망	46~47	●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46~47	●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65	●
102-12	외부이니셔티브	82~83	●
102-13	협회 가입 현황	84	●
Strategy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7/6.2/7.4.2	4~5 ●
Ethics and integrity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4.4/6.6.3	62~63 ●
102-17	윤리 관련 자문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63	●
Governance			
102-18	지배구조	6.2/7.4.3/7.7.5	60~61 ●
Stakeholder engagement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66~69 ●
102-41	단체협약		55 ●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5.3	66~67 ●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66~67 ●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 및 관심사		70~71 ●
Reporting practice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 리스트		14~15 ●
102-46	보고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71 ●
102-47	중대 이슈 리스트		71 ●
102-48	정보의 재기술		About This Report ●
102-49	보고의 변화		관련 내용에 보고 ●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
102-51	최근 보고 일자	7.5.3/7.6.2	About This Report ●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약		About This Report ●
102-54	GRI 스탠더드 적용 옵션		About This Report ●
102-55	GRI 인덱스		80~81 ●
102-56	외부 검증		78~79 ●

GRI & ISO 26000 Index

Topic-specific Standards				
	Disclosures	ISO 26000	페이지	외부검증
Topic: GRI200 Economic topics				
Economic Performance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6.8.1-6.8.2/6.8.3/6.8.7/6.8.9	74	●
Anti-competitive Behavior	103 Management Approach		62~63	●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와 그 결과	6.6.1-6.6.2/6.6.5/6.6.7	63, 75	●
Topic: GRI300 Environmental topics				
Water	103 Management Approach		56	●
	303-3 재생 및 재사용 용수의 비율과 총량	6.5.4	77	●
Emissions	103 Management Approach		56	●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57, 77	●
	305-2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6.5.5	57, 77	●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57, 77	●
Effluents and Waste	103 Management Approach		56	●
	306-1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6.5.3/6.5.4	77	●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6.5.3	77	●	
Topic: GRI400 Social topics				
Employment	103 Management Approach		52	●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53, 74	●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6.8.7	54	●
401-3 육아휴직	6.4.4	54, 75	●	
Labor/ Management Relations	103 Management Approach		52	●
	402-1 경영상 변동에 관한 최소 통지기간(단체협약상의 명시여부 포함)	6.4.3/6.4.5	55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103 Management Approach		22	●
	403-1 산업보건안전 관리프로그램의 모니터 및 자문을 지원하는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근로자 비율	6.4.6	23~26	●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6.4.6/6.8.8	23~26, 76	●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6.4.6	23~26, 55	●
Training and Education	103 Management Approach		52	●
	404-1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6.4.7	53~54, 75	●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6.4.7/6.8.5	53~54	●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103 Management Approach		52	●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2.3/6.3.7/6.3.10/6.4.3	60~61, 64	●
Local Communities	103 Management Approach		48	●
	413-1 지역사회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6.3.9/6.5.1-6.5.2/6.5.3/6.8	49-50	●
Customer Health and Safety	103 Management Approach		22	●
	416-1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의 고객 건강 및 안전 영향 평가	6.7.1-6.7.2/6.7.4/6.7.5/6.8.8	23~26	●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의 수(처분 결과)	4.6/6.7.1-6.7.2/6.7.4/6.7.5/6.8.8	없음	●	
Customer Privacy	103 Management Approach		22	●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6.7.1-6.7.2/6.7.7	24	●

UN SDGs 이행 현황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 심화, 지구환경 파괴 등의 퇴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p> <p>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p> <p>공기업 최대 규모의 일자리 창출</p> <p>고용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근무체계 개편 등을 수행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역할 중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코레일은 신규사업 확대, 시간선택제 대상 직무 발굴, 직급구조 개선,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통해 공기업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p>	<p>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p> <p>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p> <p>전사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사회 기반 조성</p> <p>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불안전요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CEO 주관 권역별 현장 안전토론회,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위험요인 1,863건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주기적 안전 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 철도 시설물 점검(621개 소), IoT기반 레일온도 측정시스템 설치 및 점검(37개 소), 차열성 페인트 레일단면 도포(101개 소)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p>
<p>공기업 최대규모 일자리 창출 10,552명 (252.9% 증가)</p>	<p>공기업 최대규모 신규채용 2,185명</p> <p>안전위험요인 1,863건 발굴</p> <p>휴먼에러 최근 5년간 51% 감축 (18년 0.342건)</p>
<p>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p> <p>지속가능도시 구축</p> <p>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p> <p>코레일은 고유 사업인 철도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 전국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열차를 도입하고 통근열차를 증편했습니다. 아울러, 공공택시 철도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여 철도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p>	<p>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p> <p>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p> <p>공정하고 정직한 사회 구현</p> <p>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였습니다.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 조사를 수행하며 계약규정 상 갑질 유발 문구를 수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대금의 적기 지급을 통해 상생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협력·위탁업체 선금 지급, 하도급지킴이 범위 확대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p>
<p>공공할인 금액 17,214백만 원</p>	<p>계약규정 갑질문구 개선 175건</p>
<p>공공할인 이용자 수 126,336명</p>	<p>협력·위탁업체 선금 지급 1,862억 원 (438억 원 증가)</p>
<p>벽지노선 7개 노선 운행</p>	
<p>공공택시 연계 서비스 174개 마을, 31개 역, 3,206명 이용</p>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D INEQUALITIE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al 1 빈곤 퇴치	Goal 10 불평등 해소
Goal 2 기아 해소,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Goal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Goal 3 보건 증진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Goal 4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향상	Goal 13 기후변화 대응
Goal 5 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Goal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Goal 6 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Goal 15 육상, 생태계 등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
Goal 7 에너지 보급	Goal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 및 제도 구축
Goal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Goal 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Goal 9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확대	

UN Global Compact

코레일은 2007년 5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후, UNGC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UNGC의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2003) 등의 선언과 협약에 유래하며, UN은 기업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10개의 보편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UNGC의 10대 원칙을 적극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	보고페이지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64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53, 55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56, 57
반부패 (Anti-Corruption)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62, 63

수상실적 및 가입단체

수상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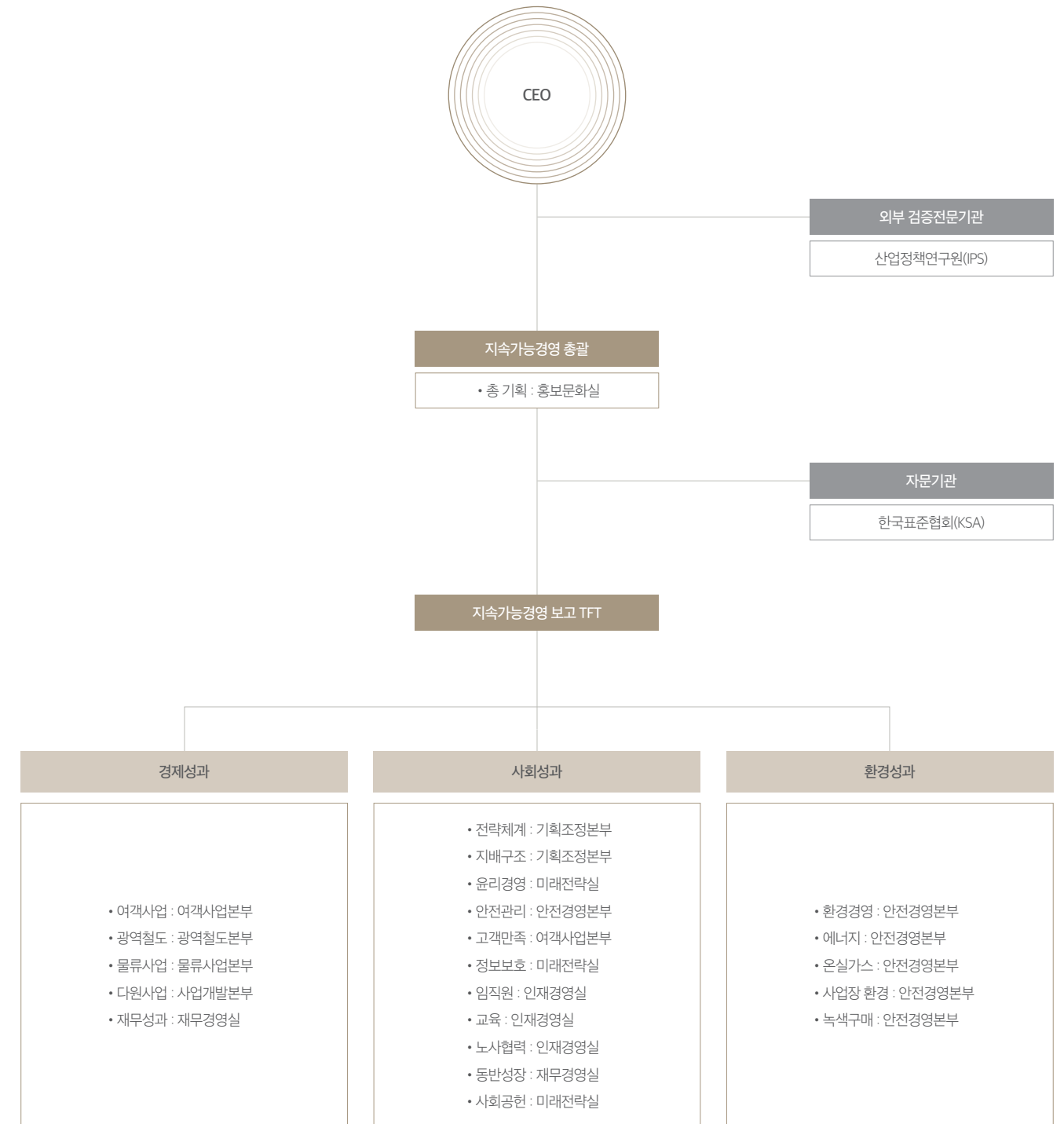
년도	수상내역	주관
	올해의 녹색상품(V-Train) 7년 연속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2018 안전보건 UCC 대상	안전보건공단, CBS
	2018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
	2018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자살 예방·생명사랑 유공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2018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 금상(코레일 사보) 2년 연속	IBA(국제 비즈니스 어워드)
2018	2018년 안전보건사례 UCC 공모전 대상 및 특선 수상	고용노동부, CBS방송국
	2018 스마트 건설기술 안전대전 시설안전분야 최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장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2018 'CEO 명예의 전당' 지속가능 부문 수상	산업정책연구원
	'공공기관 노사관계 합리화 유공' 고용노동부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감사패 수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가입단체 현황

국내		
• 한국표준협회	•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 한국물류협회
• UN글로벌컴팩트한국협회	• 감사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철도학회	• 한국능률협회	• 철도산업위원회

국외	
• OSJD(국제철도협약)	• UNGC(유엔글로벌컴팩트)
• EURAIL SPEED(고속철도국제회의)	• UIC(국제철도연맹)
• CCTT(시베리아횡단교통조정협의회)	

지속가능경영 보고조직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